미주 한인이민교회의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연구

A STUDY OF EFFECTIVE WORSHIP COMMUNICATION FOR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By

HONG, SUK YOUNG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Fort Lee, New Jersey

2011

ABSTRACT

A STUDY OF EFFECTIVE WORSHIP COMMUNICATION FOR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BY

HONG, SUK YOUNG

Worship is the raison d'etre of the church. Christians serve God in worship. Worshipers have always endeavored to offer up sincere worship. This generation is no different. It also desires to serve God through holistic worship. The author will attempt to imbue new meaning into the act of worship and present alternative methods for those wishing though effective worship communication.

We can meet with God, directly communicate with God and hear His voice when we involve in worship. And we apply to in our life continuously. We worship with a regenerate spirit (Romans 1:9), new mind (Philippians 2:3-5), and a changed heart (Romans 12:11-16). We worship God by offering 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Romans 12:1) and by living out a holy life.

After created man, people lived in communication with God. That communication, however, was broken after the first humans committed sin. God, nevertheless, wanted to restore communication. That is the reason for why he ordered prophets to continually speak to the Israelites. Then a permanent restoration of communion was actualized in Jesus. Through His birth, death, and resurrection, Jesus made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and God possible.

Protestant worship culminates in human beings' response of faith to the personal revelation of God in which He Himself appeared in the person of Christ. God interacts

with human beings in the same way we relate, because of Jesus' experience of relationship. God and people communicate through the worship. Then, this is expanded to person to person communication in the worship. Eventually, this worship which was intended to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 God lost its purpose. People who attend worship need to experience and communicate with God.

Therefore, the writer intends to suggest new ways to make meaningful the 2000 year old liturgy by adapting it to suite Korean Immigratio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Thus, they will grow through biblical, active participation that stimulates them emotionally facilitating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with God. For this to happen, worship must overflow with effective worship communication.

The writer will propose a detailed plan to facilitate this type of worship. First of all, the church should have a clear purpose and decided a direction to pursue. After that, we must make worship meaningful, not merely change existing liturgical forms. It is for the liturgy that the liturgy is not the perfunctory liturgy of the worship. Furthermore, liturgy acts as a guide to worshipers on how to communicate with God. The author's chief intention is to help the worshipper experience God in the worship, to walk with God and a person who lives to accomplish God's will. I anticipate that the methods presented in this thesis will project a solution to the Korean Immigration Chuch's worship dilemma.

목 차

표 목 차

그 림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실천신학에 관한 이해는 크게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이해와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이해로 대변할 수 있다. 전통적 이해는 실천신학을 교회의 역사적 형태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책임의 근거를 다루는 학문으로 본다.[1] 다시말해 실천신학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관련한 학문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모두 포함되는 현장위주의 학문이다.

이렇듯 교회 목회현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실천신학이지만 지금까지 신학계 내에서는 그 위치만큼 인정을 받지 못했다. 단적으로 “아이러니칼하게도 지금까지 실천신학이란 신학의 학문성으로 볼 때 할 일 없는 과목으로 소외되어졌다.”는 에벨링(G. Ebelling)의 지적은 ‘전통적인 실천신학’의 위상을 보여 준다.[2] 아울러 로슬러(D. Roessler)가 정의하는 것처럼 “실천신학이란 기독교적 전승과 현재의 경험에 대한 통찰을 학문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 이론은 교회의 역사적 형태와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의

---

[1]박근원, *현대신학실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4.

[2]Gerhard Ebelling, *Studium der Theologie* (Eine Enzyklopaedische Orientierung, 1975), 109.

[2]Gerhard Ebelling, *Studium der Theologie* (Eine Enzyklopaedische Orientierung, 1975), 109.

[3]Dietrich Roessler, *Grundriss der Praktischen Theologie* (Berlin/NewYork, 1994),

보편적 삶에 대한 책임의 기초를 제공"[3]하는 것이다. 결국 실천신학은 '신학'이라는 학문적 범주에 놓여 있으나, '목회'라는 현장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실천신학'은 학문과 현장의 연결고리다. 이에 논자는 본 연구를 통해 신학이 현장에 적용되는 실천신학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배를 살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예배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4] 이러한 목적에 맞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종종 세상을 구원할 책임을 가진 교회가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도 한다.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현세대를 대중문화의 물결에 휩싸여서 인생과 세계의 깊이의 차원(Dimension der Tiefe)을 상실한 시대(verlorene generation)라고 진단한다.[5] 이러한 상실은 사회가 감각적이고 자극적이며,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음을 말한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사회가 화폐나 시장, 행정력이나 관료제, 그리고 의사소통, 규범 그리고 가치의 세 매체에 의해

[3]Dietrich Roessler, *Grundriss der Praktischen Theologie* (Berlin/NewYork, 1994), 2-17.

[4]Wilson A. Tozer, 이용복 역, *세상과 충돌하라* (서울: 규장, 2005), 57.

[5]Paul Tillich, "Die Verlorene Dimension," in: Saturday evening Post, 1958, Nr. 50.

운영되고 있다고 말한다.[6] 세상는 교회를 통해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데, 가치규범의 기준이 어긋나게 된 것이다. 사회는 이렇게 어긋난 가치기준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조류 속에서 교회는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때도 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빌 헐(Bill Hull)은 "불행하게도 사도적인 열정을 가진 목회 지도자들이 부족한 형편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목회를 해야 할 특권적 위치에 있는 성직자들 자신이 오히려 목적의 부재성과 좌절감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7] 고 말한다. 즉 목회자의 숫자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일들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열심히 교인을 늘리고, 그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예수의 지상명령을 완성하는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회가 본래의 목적인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사회 속에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회 속 교회의 역할은 그 본래의 역할을 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흘러오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시간의 연속성을 통해 만들어져 왔다. 영국의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 1889-1975)는 문명의 흥망성쇠를 '도전과 응전'이라는 인식의 틀로 분석했다.[8]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을 통해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의 한 축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모든 지역공동체는 끊임없는 도전에 적절하게

---

[6]"세계 지성을 만나다 (1) 독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 조선일보, 1996 년 1 월 1 일 29 면.

[7]Bill Hull, 박경환 역,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요단, 1994), 11.

[8]http://www.age-of-the-sage.org/philosophy/history/toynbee_study_ history.html

응전을 했을 때 역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또한 교회의 주변사회와 문화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응답을 해 왔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적절한 응전이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때로는 역사 속에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기도 했던 교회이지만 사회의 변화의 요구에 적절하게 응전을 할 수 있었기에 현재까지 온 것이다.

인간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무수한 언어를 가진 다양성의 존재로 창조되었다. 다양성은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보편적인 인간사회 전반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다양성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광범위한 현상에 해당된다.

기독교인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예배의 다양한 표현 방식 속에 나타난 통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독교 예배의 경험을 통한 다양성을 갖고 있다. 기독교의 예배가 이천 년이라는 시간과 전세계라는 공간을 망라하여 무수히 많은 문화에 순응함으로써 예배의 형태가 무한의 다양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 예배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다.[9] 예배의 형태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대의 환경에 적응이 되어 각 시대에 가장 알맞은 옷을 입으며 성장을 해 온 것이다.

---

[9]James F. White, *예배의 역사*, 정장복 역 (서울: 쿰란출판사, 1997), 2,3.

기독교의 예배는 교회라는 제도권의 힘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예배공동체가 소속한 보다 큰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도 형성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교회공동체가 살아남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 예배의 문화화(liturgical inculturation)는 단지 생존을 위한 필요성 이외에도 본질적인 차원의 사유가 있다. 그것은 예수가 이 세상에 성육신 한 것처럼 예배도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문화를 옷 입어야 한다는 대명제 때문이다.[10] 예배의 문화화는 예배가 사람들의 문화, 역사, 그리고 전통 속으로 삽입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예배와 문화가 같은 형태의 사고방식과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의식과 상징과 예술적인 형식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점에 있어서 서로 공유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11] 예배는 다양한 문화를 품고 있다. 인간은 예배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예배라는 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

현대사회의 가치관은 또 다르다. 주후 21 세기 이후의 세대의 삶은 '과학' 혹은 '과학기술'이 인간 사회의 주거환경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인류는 이제 더 이상 과학기술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은 이제 인류의 삶에 있어서 존립기반이 되었다. 이는 주후 21 세기를 바라보는 인류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과학기술에 대단히 의존하고 있다는 뜻인 동시에, 이제는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관점의 세계관이 인간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

[10]조기연, "말씀과 식탁-과학문명기 새 예배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http://sgti.kehc.org/data/field/ practice/5.htm.

[11]Anscar J. Chunpungco, *Liturgical Inculturation sacramental, Religiosit and Catechesis*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2), 30.

주후 21 세기 과학문명의 시대는 인간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 또 한 번 '달라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관, 가치관, 우주관이 변화되어야 함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방향(reordering) 지워질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후 21 세기 과학 문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기독교 예배 역시 새시대를 맞아 달라져야 한다.[12]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동시대의 답을 찾아야 한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A 는 B 이다'의 공식이 성립되는 답이 아니다. 지구촌이란 단어처럼 전세계가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이 되어지지만, 다시 국가가 아닌 민족으로 세분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더 복잡한 현대사회에 맞는 다양한 답이 존재 할 수 있다.

예배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음성을 듣고 이를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예배는 우리의 거듭난 영혼(롬 1:9)과 새로워진 마음(빌 2:3-5), 변화된 감정(롬 12:11-16)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롬 12:1),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다(딤전 4:7-8).

초대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모였고(히 10:25), 주님을 찬양하며(시 96:1), 기도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사도들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다(행 2:42). 그러므로 예배의 기본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서 시작된다. 예배는 하나의 신비적인 체험만이

[12]조기연.

아니며 영적인 체험이다.[13]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이 예배를 통해 구체화 될 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2. 연구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룹은 뉴저지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New Jersey)의 잉글우드(Englewood)에 위치해 있는 아름다운주님교회[14]의 출석신자 중 20 대에서 40 대 초반의 청장년 그룹이다. 교회가 위치해 있는 잉글우드는 한인 밀집 지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중심으로 포트리(Fort Lee), 팔리세이드 팍(Palisade Park), 테너플라이(Tenafly)등 한인 밀집 지역이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교회가 위치해 있는 잉글우드가 아닌 주변 지역의 한인들이 자동차를 이용해 출석하고 있다. 특히 교회 옆에는 대형 한인 마켓과 FGS(Korean Community Center)가 위치해 있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이 아님에도 유동 한인의 수가 많다. [15]

[13]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서울: 프리셉트, 2000), 47.

[14]담임목회자로 구성모 목사가 사역을 하고 있으며, 교회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ttp://www.greatlord.org/index.php 을 참조.

[15]FGS 는 Friends of Grace Senior 로 2000 년 2 월 16 일 New Jersey 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었으며, 2000 년 9 월 6 일 연방정부로부터 비영리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보람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시작을 한 FGS 는 이후 Korean Community Center 의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North New Jersey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http://www.fgskcc.org/default.aspx 참조.

잉글우드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흑인과 중남미 이민자가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었고,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과 지리적 요건을 볼 때 충분히 발전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 잉글우드는 최근 교회가 위치해 있는 팔리사이드 애비뉴(Palisade Avenue)를 중심으로 과거의 이미지를 벗어버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16] 이로 인해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한인과 백인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 발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인들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이민자의 유입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한인교회의 교인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에 미래 자연적 교회성장 요인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민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입되는 경우 학군과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인접 지역인 포트리와 테너플라이는 한국인 부모들이 선호하는 거주 환경과 우수 학군으로 알려져 있어 계속하여 한국인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팔리세이드 팍과 레오니아(Leonia)는 주후 1980 년대부터 코리아 타운(Korea Town)을 형성하고 있는 한인 밀집지역이다. 더불어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뉴욕시(New York City)로 출퇴근 시간이 짧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유입 한인의 연령층은 앞서 언급한 지리적, 환경적 여건에 의해 20 대에서 40 대 중후반의 청장년 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주님교회는 주후 2004 년 개척을 했으며, 2005 년 현재의 건물을 매입하여 이주했다. 잉글우드의 팔리세이드 애비뉴에 위치해 있는

---

[16]Englewood 는 North New Jersey 에 위치해 있으며, 2009 년 ‘2009 Adopted Master Plan’을 진행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상기 내용에 관하여는 상세한 내용은 http://www.cityofenglewood.org/ content/1441/2549/default.aspx 참조.

아름다운주님교회는 개척 이후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주일에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 장년부가 각기 독립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인의 연령층은 30-40 대와 60 대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 대와 50 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민교회는 이종용의 언급처럼 전도를 통한 성장 보다는 기존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통해 교인 증가가 다수를 차지하는 단점이 있다.[17] 이민교회인 아름다운주님교회 또한 교회 출석 3 년 미만의 초신자 보다는 5 년 이상 교회를 출석한 신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동일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민 사회라는 독특성 때문에 유입 인구의 한계는 있으나, 앞서 언급한 지역적 배경으로 인하여 한인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한인 이동을 통한 유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교회는 형태적 틀 속에서의 예배의식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운주님교회 예배 또한 현대의 상황에 맞는 예배의 틀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시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 장년부의 예배로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예배의 틀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의 '달라진 필요'에 따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틀은 달라졌으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다.

논자는 본 논문이 아름다운주님교회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에 부합되는 답을 얻음과 동시에 미동부 지역의 한인이민교회, 나아가 전체 한인이민교회와 한국교회에까지 답을 얻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원한다.

---

[17]http://amenjesus.org/chnet2/board/index.html?id=61&code=BOARD8&cate=&start= 0&category=&word=&viewType=&category_id=&gfile=view

아름다운주님교회의 기존 예배를 살펴보면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은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배에 직접 참여하기 보다는 듣고, 보는 것에 익숙하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직접 예배자로서 예배의 중심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기 보다는, 예배의 진행되는 과정들을 눈으로 보며, 과정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찬양, 설교를 듣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배는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름다운주님교회 주일예배는 기존 찬송가와 현대 복음성가가 섞여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설교가 놓여있다. 틀만을 보면 분명 현대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체 약 80 분의 예배 중 40 분 가까이를 설교가 차지하고 있다. 전체 예배시간의 반은 설교를 '듣는 것'이다. 예배형태에서 약 7 곡의 찬양을 하기에 시간적으로 약 20 여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변화를 줄 때는 찬양에 먼저 변화를 준다. 하지만 전통적인 찬양의 모습에서 곡은 바뀌었으나 감성이 발달된 현대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예배에 관한 신학적, 성경적 지식의 결여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예배형태를 고수하고자 하는 마음, 새로운 것을 접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성경적이고, 능동적인 예배, 현대인의 감성적 자극을 통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있어야 한다. 적절한 예배형태와 내용에 대한 교육과 보완, 수정을 통해 현대 교회,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아름다운주님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영적 생명력이 풍성히 넘치는 역동적인 예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근래 역사 학자들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역사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활자 인쇄술의 발전에서부터 현재 전개되고 있는 첨단기술에 의한 새로운 매체의 출현, 정보화 사회의 도래라는 혁명적 변화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과 그 역사 이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한다.[18] 아울러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으로서의 기독교인으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예배의 유형이나 형식은 매우 다양하다. 예배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필요가 달라짐에 따라' 늘 변해왔고,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다양한 형태의 예배들이 존재한다.[19] 현재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진 예배의 한 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은 공동체의 인간관계 형성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다. 기독교 신앙 역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인간을 상대로 하는 자기 커뮤니케이션(self-communication) 이다.[20] 이와 같은 교회는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

[18]김용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고찰," http://www.oikozoe.or.kr/bbs/read.cgi? board=doc&y_number=23&nnew=2.

[19]James White,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89), 209.

[20]김용복.

하나님과 인간, 인간 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간과할 때 중심을 잃고 기울어진 모습의 온전치 못한 예배에 계속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이민교회의 전통적 예배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이다.

논자는 본 연구를 통해 아름다운주님교회의 성도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룰수 있도록 형태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배자들로 하여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는 길을 가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 길을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예배의 변화에서 찾고자 한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주님교회의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변화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단기간에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실천을 해 나가는 가운데 꾸준한 자기분석이 요구된다. 먼저는 예배에 관한 성경적 고찰이 필요하다. 신앙생활과 교회 속에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예배에 관한 지식이 아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고, 과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예배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한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 습득은 예배자로 하여금 인정하지 못하는 내용일지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에 대해 알게 된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참여할 헌신자 그룹을 만들어 준비시켜야 한다. 이 과정은 교회 내 전문가가 없을 경우 외부 위탁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야 한다.

목적에 맞게 잘 훈련된 예배팀은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적용을 위해 다양하면서도 철저한 준비와 수정 보완의 단계가 필요하다. 예배팀은 예배의 진행과 절차 뿐 아니라, 예배의 기획에서부터 예배 후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예배관련 모든 일들을 담당한다. 예배팀의 역할은 교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목회자와 동일한 목회관을 가지고, 장단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목회자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배팀이 단순한 행사기획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적용은 일차적으로 정규예배가 아닌 이벤트를 통한 적용과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적용할 수 있는 이벤트는 절기예배 혹은 비정규 교회행사 등을 활용한다. 예배와 행사를 마친 후에는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 더 강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과 수정과 보완점에 대한 반응을 살펴야 한다. 2 차, 3 차 적용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간다. 이어지는 설문조사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정기적인 모임으로 확대시킨다. 매 주일예배가 아닐지라도 주중예배, 격주 혹은 월 1 회 비정규예배에 적용을 통해 정기적인 아름다운주님교회의 예배로 발전시킨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분명한 영적 경험이 있는 이전에 비해 보다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도록 돕는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주일예배를 시작으로 성공적인 예배의 변화를 이루면, 나아가 연령과 세대를 극복해 보는 실험을 한다. 3 세대로 접어든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세대간 격차이다. 동일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으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를 넘어선 신앙교육에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간 격차를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극복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에 교회는 학생회와 청장년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찬양하고, 교제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아름다운주님교회 내 모든 예배가 역동성이 넘쳐나는 보다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으로의 전환을 최종 목표로 하고자 한다.

II. 예배 커뮤니케이션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준을 인간들에게 제시함으로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역사학자 웨버(Robert E. Webber)는 예배를 '하나님과의 교제' 곧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하면서, 그 시초를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본다. 그리고 이어서 시작된 제사는 예배의 표준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 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시하신 예배의 표준은 예수에 의해 재정의된다.

올바른 예배를 위해 예배자는 섬기는 신의 존재가 물리적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 예배는 예수 중심의 예배로 연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신교의 예배 가운데 최대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예배의 형태와 내용과 메시지가 성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예배는 영성을 수반한다. 영성은 관계성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 중 하나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즉 타자와의 합일을 원하는 본질적 열정이다.

이는 인간상호간에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함이며, 세상에서 창조적인 행위들로 스스로를 나타내보이는 것이 곧 영성이다. 그리고 이를 예배를 통해서 표현한다. 각 교회가 따르고 있는 예배의 형태는 그 자체가 영성임을 인정하는 것과 영성이 수반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 영성은 곧 예배자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이다.

본 장에서는 예배의 모체가 되는 교회 그리고 예배자와 예배의 대상 상호간의 독자적 특징과 커뮤니케이션을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인의 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아울러 예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신학적, 성서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1. 교회론

1) 교회의 정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 할 때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본 논자는 이에 먼저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교회의 역사가 아닌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 교회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현대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함이다.

교회의 사명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이 교회의 기본적인 목적임을 거듭 지적해 주고 있다(롬 15:6,9; 엡 1:5,6,12,14,18; 3:21; 살후 1:12; 벧전 4:11). 이러한 기본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나아가 인간을 교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두신 목적을 말하고 있다(엡 4:11-16). 이는 교인들 주위에 있는 이단에 대항해서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 교인들을 교육함을 의미하기도 한다(골 2:7). 복음을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의 일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성경은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한다(마 28:19; 막 16:15; 행 1:8).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를 '개선'시키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즉 교회는 온 세계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어 그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21]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온전케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 본 논자는 논문을 통해 교회론을 다시 재정립하고자 한다.

2) 교회의 시작

교회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종교 신앙이 같은 사람들의 조직체' 혹은 '주로 기독교에서 종교 신앙의 가름침을 선포하며 예배 의식이나, 종교적 회합을 하기 위하여서 상설한 건물'로 이해 할 수 있다.[22] L. Berkhof[23]와 박형룡은 교회를 세가지 관점에서 정의한다.

선택적 관점에서는 피택자들의 집단으로, 유효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은 피택자들의 단체, 혹은 신자들의 공동체라 말한다. 세번째로는 세례와 신앙고백의 관점으로 교회는 세례 받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 혹은 그 자녀들과 함께 참 종교를 고백하는 자들의 단체라고 말한다.[24]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는 교회의 본질의 성질에 관해서 그 의견의

---

[21]Henry C. Thiessen, *조직신학개론*,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682-8.

[22]*한국어 대사전*, 한국어사전편찬회편 (서울: 현문사, 1976), 183.

[23]L. Berkhof, *교회론*,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6), 36-7.

[24]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박형룡 박사 전집 VI (서울: 1983), 30-1.

차이를 현저히 보이고 있다. 전자는 교회의 본질을 외부 또는 유형적 조직체로서의 교회에서 찾는다. 사실 이 조직체를 엄밀히 살펴보면, 그것은 그들의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의 전 단체가 아니라, 주교, 대주교, 교황의 최고 고문들, 또는 교황 등의 보다 높은 교권자들의 단체임을 알게 된다. 그들은 '교훈하는 교회'로서의 이 단체와 '교훈을 받는' 혹은 '설교를 듣는 교회'로서의 신자들의 공동체를 구별지어 놓았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교회에 관한 외부적인 개념에 반항하고, 성도들의 내면적 또는 영적 교통에서부터 교회의 본질을 찾았던 것이다.[25]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역시 차이를 보인다. 카톨릭에서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그렇기에 카톨릭 교회에 소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되는 셈이며, 교황권은 곧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하는 것이 된다.

세대주의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는 별 관계가 없는 미래의 사건이 된다.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설교한 것은 있으나 교회가 가까웠다고 설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것으로 교회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긴밀한 연관 관계는 있으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26] 아울러 교회가 변화하는 사회, 문화, 경제 속에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에는 변함이 업시만 적어도 교회는

---

[25]L. Berkhof, *기독교 신학개론*,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6), 298.

[26]Wayne Grudem, *조직신학(하)*, 노진준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7), 29-35.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변화의 도전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7]

3) 21 세기 교회론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원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가족 중심의 교회 생활에서, 이제는 자신과 동일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개인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이해 역시, 과거의 예배 장소에서 이제는 사회 속 개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공동체적인 교회로 이해의 방향이 변화되고 있다.[28]

기독교 교회는 현대 사회에 이르러 점차 붕괴되어 가고 있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계몽주의는 세속화를 가져왔고,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수용적이고 추구적이며 만족할 만한 세계관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일로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21 세기는 말씀의 전파가 필요한 신사도시대라고 말하며, 예수님 당시와의 유사점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사점들을 살펴보면 먼저는 서구 사회의 세속화와 계몽주의의 실패로 인하여 이제 서구 사회는 다시 추수할 밭이 되었다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만족을 위해 더 희구하고 갈구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27]George G. Hunter III, *Church for the Unchurched*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6), 20.

[28]김연택, 19.

추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추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기존교인들에 대한 양육에만 관심을 가진채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추수할 일꾼이 적음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데 대해 교인들이 복음 전도에 대한 훈련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이 현대교회가 사회 속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교인의 약 20%가 전도 훈련을 받을 경우 그 중 약 1% 정도만이 실제로 전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와 현대는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초대교회 당시와 현대의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많은 일꾼들이 추수 밭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전통적인 교회들이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고 지역에 있는 교인들 중심으로만 사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에는 공통적인 원인이 있다. 추수할 대상이 다른 데 따른 변화된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한 것과 실제로 수확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전도받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거지고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세상이 변한 사실을 교회는 알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으로만 전도하려 하고 있다.

20 세기 초의 전도는 주일 저녁 예배, 주일학교, 부흥회, 수양회, 전도대회, 개인 전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방식으로 전도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다른 전도 방법론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전도는 반드시 전도 대상자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29]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성경적 교회의 미래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 먼저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될 것이며(계 19:7),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딤후 2:11-13; 계 20:4,6; 22:5). 그리고 교회는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증거할 것이다(엡 3:10, 21). 교회의 그리스도와의 함께한 존재적 사실은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교회를 구하고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말해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서 영원토록 영화를 받으실 것이다.[30]

4) 교회와 선교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선교, 즉 복음 전파인데, 그것은 사역으로써의 일이라기보다는 성도의 본질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는 어떤 인간적 행위에 대한 결화로써의 결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따라 자연스럽게

[29]Ibid., 25-6.

[30]Henry C. Thiessen, 689-90.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이다.[31] 이는 교회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을 기초로 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회적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고, 이는 관계성, 책임성, 언어적 상징, 지성,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 진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대해 책임성이 있음을 강조한다.[32] 이러한 선교사회학의 조명을 통해 교회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와 경험에서 복음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33]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 선교 사명과 더불어 그 선교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선교를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교회의 당연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8 을 살펴보면,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통해 증인이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증인'이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성령의 권능 아래 있는 교회는 마당히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성령과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가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확립하면 자연적으로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교회가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서 이념이나 논리를 통해서 하면 안된다.

---

[31]이광호, 세계 선교의 새로운 과제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55.

[32]John P. Williams, "Why Should a Christian Study Sociology?" in De Santo et al. eds. A Reader in Sociology: Christian Perspectives (Penn: Herald Press, 1980), 23-35.

[33]이광호, 14.

오히려 각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확장되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도록 해야 한다.[34]

2.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1)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커뮤니케이션이며,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개입은 필수적인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상징을 통해 정보나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35]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라틴어 동사는 'communicare'로서 '같이 이야기하다(to talk together),' '협의하다(confer),' '대담하다(discourse),' '상담하다(consult)'의 뜻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말은 '지역공동사회(Community)'를 뜻하는 라틴어의 'communitus'라는 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란 사회의 공동목표를 위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36] 이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생물체가 다른 생물체와 지식, 정보, 의견, 신념, 감정 등을

---

[34]Ibid., 56-7.

[35]유세경, *방송학 원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17.

[36]Gerald Barry Ed., *커뮤니케이션학개론*, 차배근 역 (서울: 세영사, 1987), 17.

'공유' 또는 '공통화'하는 행동이다. 결국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공동체는 경험을 나눔으로써 공동체적 연대를 유지한다.[37] 이런 공동체적 연대는 공동체 속에서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

조성호는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언급하면서 예언적 커뮤니케이션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진리에 봉사하며, 허위에 도전한다고 말한다.[38] 결국 기독교인에 의해 기독교 교회의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예언적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나님을 향해 인간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표현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세상에 봉사하고, 세상의 모든 그릇됨에 도전하는 것이다. 교회는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추구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커뮤니케이션 사회학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interaction)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일정한 의도를 전제하고 있다.[39]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적 작용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만큼 커뮤니케이션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 속에서 그 문화의

[37]김용복, "공동체 운동과 커뮤니케이션,"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5 월호.

[38]조성호, "WACC 의 활동과 커뮤니케이션 선교 정책,"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년) 5 월호.

[39]박종균,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기독교," 세계의 신학 제 46 호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151.

고유한 상징을 습득하고, 만들어 가며, 다음 세대로 전수하게 된다. 상징에는 언어적 요소 뿐만 아니라 특정 문화 내에서 해독 가능한 고유한 몸짓 혹은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까지 포함된다. 커뮤니케이션 범주에는 언어적 전달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전달까지 포함된다.[40]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사용하여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이룬다.

반면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언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라는 이해의 서술이 예시하듯, 언어를 통하여 생각하고 언어와 더불어 느끼며 언어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41] 특히 언어적 요소의 중심에는 대화가 있다. 대화라는 것은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의미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말을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격과 인격이 상호 교류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본래대로의 자신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또 본래대로의 상대방의 모습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말한다.[42] 인간은 대화를 통해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타인에 대해 알아갈 뿐 아니라, 이해를 하게 된다.

해롤드 드와이트 라스웰(Harold Dwight Lasswell)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누가(who),' '무엇을(what),' '어떠한 매체를 통해(in which channel),' '누구에게(to whom),' '어떤 효과를 가지고 말하는가(with what effect)?'라고

---

[40]유세경, 17.

[41]Hans G. Gadamer, *Truth and Method* (New York: Crossroad, 1982), 397.

[42]Reuel L. Howe, *대화의 기적*, 김광선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9), 45.

정의하고 있다.[43] 이는 인간이 인식 동기라고 하는 호기심, 탐색, 자극추구 등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44]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때 이러한 본능을 통해 이루어 간다.

본 연구에서는 한인이민교회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한인이민교회의 구성원은 한국인이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는 특정 민족에 대한 성향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논자는 이와 같은 보편적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통해 '한국인'이라는 특정집단을 이해하는 것이 한인이민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본다.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을 특징짓는 개념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체면, 눈치, 기분 등이다. 이와 유사한 커뮤니케이션 행동은 동서양 구별 없이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만의 특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희승은 '체면이란 남을 대하는 체재와 면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45] 체면, 눈치, 기분에 관한 한 한국인에게는 특별히 유별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서 배워 터득하고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서 매일 경험하는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이다.[46] 주변의 문화로부터 자의적 인식 없이 많은 편견들을 학습하게 되고, 부모는 또 편견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직접

---

[43]유세경, 18.

[44]Edward L. Deci, *Intrinisic motivation* (New York: Prenum, 1975), 81.

[45]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제 3 판* (서울: 민중서림, 1994), 3631.

[46]박기순, *인간, 매체,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13.

가르치지 않고서도 전달시킨다.[47] 이러한 한국인의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행동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됨으로 자연스럽게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루는 한국인의 독특한 양식이 된 것이다.

최상진과 유승엽에 따르면 체면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나 상대의 지위 혹은 외적 명분을 높여주는 행동의 과정 또는 현상을 지칭한다.[48] 아울러 브라운(Brown)에 의하면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체면을 유지하거나 세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체면은 보편적 현상이다.[49] 주변 사람과 어긋나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려 하고, 타인의 생각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높으며,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많다.[50] 한국인의 신체적 기능은 주로 기분 상태에 달려 있다. 기분이 좋으면 사람은 부드럽고 편하게 기능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화가 나거나 기능이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다.[51] 동일한 현상이 교회의 신앙공동체 안에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인간과 인간 뿐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존재한다. 이는 한국교회를 정적이고, 의식적인 방향으로 안내한다.

---

[47]Richard D. Ashomre, *Psychological Approches to Understanding Intergroup Conflict* (Oxferd: Pergamon Press, 1976), 73-124.

[48]최상진, 유승엽,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사회,' Vol. 6. No. 2 (서울: 한국심리학회, 1992), 137.

[49]Brown, Penelope & Stephen Levinson,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13.

[50]박종사마, "한국인의 사회행동에서 나타나는 체면-기분-눈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의 가능성," 숭전대학생 지도연구, 1985. 12.

[51]박기순, 30.

이시형은 한국인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영역을 친밀대, 공중대, 그리고 이 두 지대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대로 분류한다.[52] 친밀대에는 가족, 아주 친한 친척, 친구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개인이 따로 없고 모두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친밀대에서는 체면치레와 겉치레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 친밀대의 특성은 어린이처럼 응석을 부리고 응석을 받아준다는 데 있다. 비록 응석이 어린이에게 특권처럼 주어져 있기 하지만 응석이 통할 것인지 아닌지는 상대방의 눈치를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공중대는 한국인에게 '편한지대'이다.[53] 낯선 사람들 속에서 자기 편한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치 않으며,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개의치 않는다.

문제는 중간대에 있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공중대에서처럼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된다. 중간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므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54] 이와 같은 현상은 특정집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적 문화를 간직한 한국인들을 통해 형성된 집단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인으로 구성된 한인이민교회 역시 이러한 내용에서 예외일 수 없다.

---

[52]이시형, 대인공포증 (서울: 일조각, 1993), 153-4.

[53]Ibid., 153.

[54]Ibid.

일반적으로 인간은 다른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래서 체면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창피, 치욕, 염치도 알아야 한다. 중간대는 바로 이러한 체면이나 부끄러움이 발생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남에게 잘 보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을 앞서야 하는,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55] 눈에 보이지 않는 집단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경쟁으로 연결이 되어 형식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공동체 내에서도 이러한 반응은 대중 속에 자신을 고립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그 존재감은 대중화로 연결되어 인간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지 못한다. 예배에 참여하는 개인은 대중화의 영향으로 군중과 함께 동화된다. 개인의 예배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대중화를 통한 예배의식의 참여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온전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예배에 대한 변화의 요소가 요구되는 것이다. 현대교회의 예배는 대중화된 예배자들을 적극적인 예배자로의 변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는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공통되는 경험의 표지를 사용해야 하고, 수신자에게 개인적인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하며,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56] 예배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수신자인 예배자는 커뮤니케이션의 송신자인 하나님을 통해 제시되는 내용에 대해 듣고, 반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 간에

---

[55]Ibid., 154.

[56]Robert E. Webber, *그리스도교 커뮤니케이션*,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94.

요구하는 내용이 공통분모를 이루어 갈 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간대에 존재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갖는 관계성 향상의 한계가 예배 속에서 나타날 때, 예배를 통한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 중간대의 특징인 체면과 부끄러움이 하나님과의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배자가 중간대의 관계 형성대에서 친밀대의 대역으로 옮겨짐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변화는 타인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 변화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옮겨진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간대에서 친밀대의 영역으로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옮겨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친밀대로 변화된 인간은 개인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배 속에서 인간관계 형성대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개인이 속한 사회조직 속에서의 자신의 변화를 발견한다. 결국 교회를 통한 변화가 조직과 사회의 변화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는 예배는 개인의 변화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에 교회는 교회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사회 정의 혹은 섬김과 봉사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예배 커뮤니케이션이 회복된 예배자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

3. 예배 커뮤니케이션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내적실현은 기독교의 원천적 코이노니아 (koinonia)의 경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경험의 회복에서 가능한 것이다.[57]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현실 지배체제, 지배언어와 문화에서 해방되는 경험임과 동시에 억압적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질서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독교인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요소, 죄의 요소들로부터 해방 될 수 있다. 이것이 곧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이다. 이제까지 예배 속의 커뮤니케이션은 설교의 효과적인 전달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되어져 왔다. 그러나 논자는 본 논문을 통해 예배 속의 커뮤니케이션을 설교의 효과적인 전달만이 아닌 하나님과 예배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의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예배자인 인간 사이의 관계로 국한시키고자 한다.

1) 예배 커뮤니케이션의 신학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통전적 커뮤니케이션의 종교이다.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인간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57]김용복, "공동체 운동과 커뮤니케이션," 83.

인간이 갈등과 소외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의 본질인 커뮤니케이션을 붕괴 또는 왜곡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룩한다.[58]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나, 피조물인 인간이 무시된 상태에서 주권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피조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예배자가 지닌 하나님에 대한 신념과 인식은 그 사람이 표현하는 예배의 내용을 결정한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명백히 아는 것이 예배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59] 예배는 반드시 신학의 판단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학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 예배는 감상적이고 유약하여 맹목에 빠지기 쉽다. 반면에 예배 없는 신학은 냉랭하고, 그 자체에 생명력이 없으므로 예배와 신학은 함께 결합되어 강한 믿음을 유도하고 기독교인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도록 돕는다.[60] 아울러 예배가 신학으로 연구되지만 예배현장인 개교회의 예배가 없으면 존재가치를 잃어버린다. 역으로 개교회의 예배 또한 신학적 연구의 검증을 통해 내용적 완성을 추구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항상 예배에 있어서 알파(alpha)이며 오메가(omega)가 된다.[61] 예배란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믿음 안에서의 응답이다.

---

[58]김용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고찰.”

[59]박은규, “예배신학,” 제 9 회 연신원 목회자 신학 세미나 강의집, 현대교회의 예배와 설교 (서울: 연세대학교 유니온 학술 자료원, 1989), 222.

[60]정용섭,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 예배의 갱신,” 신학사상 제 14 집, 1976 년 9 월, 468.

[61]김소영, *예배와 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30.

그러므로 예배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제공되고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요, 참다운 만남이다.[62]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계시, 즉 자기 커뮤니케이션(self-communication)이다.[63]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예배자인 인간을 향해 자기 자신 즉, 피조물을 향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피조물인 인간은 이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와 만남이 예배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결국 예배 속의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진 예배는 형식적인 껍데기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회중이 예배에서 대면하고 경험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 '예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등 영적인 실재(spiritual reality)들이다.[64] 성령은 인간에게 영감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교통의 사역을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 속에서 성령의 영감과 감동에 의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적 존재이며,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삼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적 실체(communicative entity)라고 규정 지을

---

[62]Franklin M. Segler, *목회학개론*, 이창희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79), 225-6.

[63]김용복, "공동체 운동과 커뮤니케이션," 78.

[64]조기연.

수 있다.[65] 현대는 이러한 삼위의 커뮤니케이션적 실체에서 성령의 역할과 사역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구약의 창조주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은 신약에서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시고 인간을 위하는 사랑을 그의 아들 예수의 인격과 사역으로 나타내고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에서 제사로 예배되었던 것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육신으로 세상에 옴으로 유대교의 제사와 의식이 끝나게 되었다. 이후 예수의 탄생, 생애, 죽음과 부활을 중심한 역사적 사건이 구약의 제사제도를 충족시켜 예수의 구속역사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되었다.[66] 이러한 내용은 현재의 개신교예배에도 이어져오고 있다.

개신교예배는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믿음 안에서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의 인격 속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한다. 하나님은 예수와 더불어 가지는 인격적인 경험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인간을 직면한다.

예배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제공되고,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다.[67] 예배의 형식에 나타나는 모든 순서들은 이러한 교제를 이루기 위한 길과 방향을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는 예배 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되고, 또 이를

[65]김용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고찰."

[66]Robert G. Rayburn, 94.

[67]Franklin M. Segler, 225-6.

수 있어야 한다.

예수를 통해 드러난 신약의 예배는 요한복음4장24절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을 통해 의식과 형식의 예배가 아닌 영적인 예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배가 영적이라고 해서 예배의 형식이나 의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다.[68] 예배적 형식 위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배자가 예수의 자기봉헌(self-oblation of Christ)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배자가 예배에 참여를 통해 얻는 감동과 변화는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69]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의 결정적 의미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커뮤니케이션과 코이노니아가 역사 안에서 현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복음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좋은 매개체이며, 복음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어진다.[70] 그리고 성령은 예배에 참여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확신케 하고(요16:8), 예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며(요16:14-5)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또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갈2:20).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배의 형식보다 더 확실하게 고착된 것은 없었다.[71] 현재 개신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역시 오랜 시간을 지나 오면서 고착화 된

[68]김소영, 45.

[69]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7), 14.

[70]박종균, 167.

[71]Edmund P. Clowney,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P, 1998), 133.

것이다. 미래에는 또 다른 예배의 형태가 생겨나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각 시대에 정착된 예배의 형태가 그 시대의 문화와 언어, 사고 등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가장 적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인간이 갈등과 소외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의 본질인 커뮤니케이션이 붕괴 또는 왜곡됐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룩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는 공동체의 실체가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수단적 과정일 수 없다.[72]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수단이 아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

현대 개신교 예배의 기초는 신약성서가 기록, 편집되던 수십여 년 동안의 예수 부활 후 1 세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라는 표준에 의해서 검증되고 있다.[73] 이 표준을 통해 초기 교회의 예배형태의 기반이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제단을 가리키며 예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였다.[74] 이는 바울이 당시의 철학이라는 문화의 옷을 입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음을 뜻한다. 기독교 공동체가 맨 처음 예배 드린 곳은 평범한 가정집에서였다. 그 안에서 그들은 단순하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떡을 떼며' 공동체의 행위를 가졌다. 그러나 불과 수세기만에 교회는 화려한 바실리카식 대성전에서 예배를 거행했다. 이는 바실리카식 건물이

---

[72]김용복, "공동체 운동과 커뮤니케이션," 80.

[73]James F. White, *예배의 역사*, 2,3.

[74]사도행전 17:22-29.

당시의 웅장한 법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을 통해서 기독교의 웅장함과 고귀성을 나타내고, 또한 로마사회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함이었다.[75] 결국 초기예배는 장소와 형태를 우선시 하기 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이룰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장소와 형태를 결정했다.

교회 공동체는 당시 교회가 처해있던 주변 세계로부터 많은 요소들을 받아들여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였다. 이교의 요소가 있던 자리에 그것을 없애고 기독교의 것으로 대치시키거나, 이교의 제의적 요소 중에서 그 형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그 의미를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채우는 방식이었다. 교회가 이렇게 바깥 세상의 요소들을 교회의 예배의식 속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궁극적인 실재를 접촉하고 인지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을 통하여 예배의 전통을 풍부하게 했다.[76] 그러나 이러한 예배의 문화화는 결코 인위적으로 도출되거나 조작되어서는 안되며, 교회가 처한 세계의 문화적인 상징과 제도(institution)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한다.[77]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

[75]David N. Power, *Worship: Culture and Theology* (Washington D.C.: The Pastoral Press, 1990), 77.

[76]조기연.

[77]David N. Power, 68.

목적이라면 이를 이루기 위한 예배의 문화화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제 2 차 바티칸에서 주창한 예배 갱신의 핵심은 회중의 '온전하고 의식적이며, 능동적인 참여'(full, conscious, active participation)라는 것이다.[78] 회중은 예배 속에서 '참석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가야 한다.

주후 21 세기의 예배는 동시대의 예배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79] 하나님은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성육신에는 상황화(contextualization)의 요소가 포함된다. 예배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문화적 배경 안에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80] 성경적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타문화를 바라보는 것은 전달체계에 큰 도움이 된다.[81] 예배를 어떤 정형화된 틀 속에 가둘 수는 없다. 초기 기독교 예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배는 언제나 동시대의 문화를 포함하여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루어 놓은 현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이 교회와 기독교인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

---

[78]Annibale Bugnini, *The Reform of the Liturgy 1948-1975*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0), 41.

[79]조기연.

[80]Eddie Gibbs, 179.

[81]정흥호, *복음주의적 상황화* (서울: 한국고로스연구원, 1996), 139.

2) 성경 속에 나타난 예배 커뮤니케이션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이야기로 엮어져 있다. 여기서 형성된 것이 소위 계약 공동체(covenant community)인데 이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faithfulness)이 완전히 소통되는 공동체이다.[82] 앞서 언급한 송신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수신자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가 서로 공통된 통로를 가지고, 동일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에서 하나님은 복수성을 지닌 복수적 통일체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으로 연결된다. 인간은 단수가 아닌 복수로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 즉, 통합적 인격체 (co-humanity)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졌다.[83] 하나님은 복수의 존재로서 그들 안에서 스스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가며, 인간은 남자와 여자[84]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룬다. 이는 성경 속의 커뮤니케이션은 조물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관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 단절되기

[82]김용복, “공동체 운동과 커뮤니케이션,” 78.

[83]http://www.oikozoe.or.kr/bbs/read.cgi?board=doc&nnew=2&y_number=22.

[84]여기서 언급하는 ‘남자와 여자’는 성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남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인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간으로의 남자와 여자를 말한다.

시작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깨지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 커뮤니케이션을 자기의 이익과 권력을 위하여 왜곡하였다. 이로인해 인간 공동체가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질된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다.

죄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이 파기되었을 때, 인간은 신에게서 소외된다. 때문에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제사적 매개과정이 필요하게 되며, 여기에 고백과 용서, 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있게 된다.[85] 예배의식은 피조물인 인간과의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인식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인간과의 관계회복 즉, 커뮤니케이션의 길을 준비해 둔 것이다.

하나님은 희생제물과 제사를 통하여 화해를 이루고, 새롭게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고, 진정한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온을 실체로 하는 공동체를 회복한다.[86] 구약으로부터 계속되어 이어진 희생제물과 제사는 하나님 스스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는 일부분인 예수가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인 인간 공동체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함으로 다시 연결되는 고리가 된다.

인간의 타락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복하는 것이 곧 구원인 것이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는 방법이 성경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그 방법들을 살펴보면 형식은 달라도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완성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이 중 본 논자는 제사와

[85]김용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고찰.”

[86]김용복, “공동체 운동과 커뮤니케이션,” 79.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을 성경 속에서 찾고자 한다.

기독교 신앙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즉 인간을 상대로 하는 자기 커뮤니케이션(self-communication)임을 앞서 논했다.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에 신음하고 울부짖을 때,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고통에 신음하고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출 3:7)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회복 사건은 히브리 백성의 애굽탈출이라는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진다.

이후 히브리 민족의 전통예배는 서로 화답함에 있다. 사제와 회중, 성가대와 회중, 독창자와 성가대 혹은 회중, 아니면 둘로 나뉜 회중이 서로 화답하는 기도와 찬양이 중심이 된다(출15:21, 민10:35, 삼상18:7, 느12:24,31). 예배는 거듭난 영혼(롬1:9), 새로워진 마음(빌2:3-5) 그리고 변화된 감정(롬12:11-16)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롬12:1),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다(딤전4:7-8).

반면에 초대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즉,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모였고(히10:25), 하나님을 찬양하며(시96:1), 기도하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며, 사도들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다(행2:42). 그러므로 예배의 기본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서 시작된다. 예배는 하나의

신비적인 체험만이 아니며 영적인 체험이다.[87] 토저(Wilson A. Tozer)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신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으로, 그를 사랑하는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 또한 우리가 그 분을 우리 안에서 경배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모시도록 우리를 양육하기 원하신다. 그는 진정한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가 영적인 참된 축복을 나타내 모이기를 원하신다. 그는 또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의 정신적인 기쁨의 충만의 경이를 가르치기 원하신다. 이러한 예배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88]

이는 곧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는 예배자 속에서 영적인 교감을 돕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과 지성과 의지의 연합적인 영적 응답이어야 한다.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며, 중생의 체험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한 헌신과 경배이다. 예배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수반된 삶이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감사 그리고 감격에 넘치는 감정적인 표현과 함께, 말씀에 따른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다.[89] 결국 구약시대에 예언자로 불리우는 많은 예배 집례자들은 그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야훼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재하는

---

[87]김연택, 47.

[88]Wilson A. Tozer, *Whatever Happen to Worship?* (Camp Hill, PA: Christian Publications, 1985), 26.

[89]김연택, 48.

역할을 하는 미디에이터(mediator)였다고 볼 수 있다.[90] 예배는 예배자가 예배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주가 아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의 의지적 결단이 결국 '올바른 예배'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희생제사'란 말로 표현되었다.[91] 그러나 이들은 희생제물은 그것 자체가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제물은 다만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내적태도에 대한 가시적인 상징에 불과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다만 예배자의 회개와 복종, 그의 기도와 찬양을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후대의 몇몇 시편에서 볼 수 있음과 같이 희생제사에 의한 예배와 '영적'인 예배를 함께 놓는다고 하여 모순될 것은 없다.[92] 의식이 주를 이루는 희생제사가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라는 단순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장과 그의 가족과 계약을 맺었다. 이 시대의 예배는 주로 개인제단과 가정제단이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제단에는 희생제물이 중심이었다(창 15:9; 22:5-8).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예언자(창 18:19), 제사장 혹은 왕으로 불리웠다. 공적인 예배에는 족장들이 주관하였고, 가족과 더불어 예배를 한 곳은 가정이었다.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였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그 가족과 더불어 이동할 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93] 이후 율법시대의 공적 예배의 장소는

---

[90]http://www.oikozoe.or.kr/bbs/read.cgi?board=doc&nnew=2&y_number=22.

[91]Ramond Abba, 11.

[92]Ibid., 11.

[93]김수학, *개혁파 예배학* (대구: 보문출판사), 31-1.

성전을 중심하여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아닌 곳에서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94] 이들은 아직 확고한 예배 커뮤니케이션이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제시된 형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한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구약의 예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기독교 예배의 기초는 유대교 회당예배가 된다. 이 회당예배는 1세기 말엽부터 고정된 예배형식에 의하여 예배를 드렸다. 회당예배의 중심은 설교와 교훈이다. 설교나 교훈은 반드시 성직수임을 받은 사람이 해야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나가는 방문객에게도 교훈을 줄만한 능력이 있으면 설교의 직능을 부여하기도 했다. 예수가 나사렛의 회당에서 성경낭독과 설교를 맡았던 경우(눅4:16-21)나 사도 바울이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던 것(행13:15-42)에서 알 수 있다.[95] 회당예배 속에 말씀 읽기와 가르침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회당예배는 대체적으로 찬양, 기도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96] 구약과 비교했을 때 제시된 형식 속에서 수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지던 예배에 예배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상당 부분 부여되었다.

회당을 다스리는 사람은 '예배에의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할 사람을 회중

---

[94]Franklin M. Segler, 예배학원론, 49-51.

[95]김이곤, "회당예배," 제 9 회 연신원 목회자 신학세미나 강의집, 현대교회의 예배와 설교 (서울: 연세대학교 유니온 학술 자료원, 1989), 159-61.

[96]Ralph Martin, *초대교회예배*, 오창윤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86), 30.

가운데서 사회자로 지명한다(눅4:20). 느헤미야9:5과 같이 그가 큰 소리로 '찬송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면 회중들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찬양'으로 응답한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위대하심과 축복하심을 생각하도록 초청받는다.[97] 이 초청을 통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는 것이다.

신약시대와 사도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일성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됨을 이루려는 정신을 가졌다. 이 시기의 예배는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고, 주의 만찬으로 새언약을 수립하며, 찬양, 기도, 설교 그리고 친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됨을 경험하게 하는 모임이었다. 결국 영원하고 불변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하는 예배생활의 기초가 확립되었다.[98] 예수를 통해 제시된 예배 속의 커뮤니케이션이 해를 거듭하면서 성령을 통한 예배의식 속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신약성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초기 교회의 예배의 요소는 성경봉독(행17:11), 찬양(엡5:19, 골3:16), 봉헌(고전16:1,2, 고후8,9장), 회중의 아멘(고전14:16), 신앙고백(딤전6:12, 고후9:13), 평화의 입맞춤(롬16:16, 고전16:20, 살전5:26), 기도(행2:42), 설교(행20:7-11), 예배자의 참여(고전14:26), 방언(고전14장), 떡을 나눔(행27:35,36), 성만찬(고전11장)과 같은 것들이다. 특히 성만찬 속에서 예수의 임재를 어떤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

[97]Ibid., 39.

[98]박은규, 73.

체험으로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다.[99] 제사의식을 통해 존재하던 의식적 예배형태가 성령임재 사건 이후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영적인 체험에 대한 강조가 의식의 쇠퇴를 의미하지 않는다. 초대교회의 예배형식은 상황에 따라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어 지기도 하였으며, 또는 일정한 형식으로 고정되어 예배때 마다 반복되었다.[100] 이는 정형화되지 않은 의식 속에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둔 예배라고 볼 수 있다.

예수와 사마리아 여자의 예배에 관한 대화에 대해 요한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라고 기록한다. 여기서 '진정'은 내용을 말하며, 이는 곧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형식 안에 구체화 되어야 한다. '신령'은 예배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 둘은 하나의 경험 안에서 결합된다.[101] '신령'과 '진정'은 '올바른 예배'를 위한 필수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수의 성육신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신의 계시요,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교감 행위이다. 이러한 성육신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실체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곧 코이노니아 (kononia),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모든 갈등과 분열과 소외가 사라지고 완전한

---

[99]William D. Maxwell,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17.

[100]Oscar Cullmann, *원시기독교예배*, 이선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12.

[101]Franklin M. Segler, 37.

커뮤니케이션(perfect communication)이 이루어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것이다.[102] 이렇게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이는 다시 예배 공동체 내에서 예배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된다. 예배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예배를 살펴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설교를 통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대하거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예배를 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50 편 23 절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의 기록처럼 '제사' 즉 지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기도와 찬양은 이를 위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들이다.[103] 수동적 예배참여에서 능동적 예배참여로의 전환이 예배를 통한 예배자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킨다.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복음 전달의 매체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 행해진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모델은 세속적인 인간 역사 속에 개입,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참여 행위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역사 참여 행위는 성서적 맥락에서 인간과의 참된 의미의 인격적 교제를 꾀하는 행위이며, 신학적으로는 인간의 구원을 의도한 행위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 참여 행위의 성격은 구원사적

[102]김용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고찰."

[103]Henry C. Thiessen, *조직신학강론*,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5), 683.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104] 이러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3) 예배 커뮤니케이션의 교회사적 전망

오늘날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예배의 문제점은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가 열린예배냐, 전통적인 예배냐 하는 것보다는 개인예배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삶이 분주해지고, 과거와 같은 가정의 개념이 깨어진 시대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상고하는 일은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는 다시 무너진 개인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을 교회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개인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교회의 의식과 예배가 훌륭하다고 해도 교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105] 참다운 예배의 실상과 양상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오늘날의 예배의 바른 형식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질이 왜곡되므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106] 과거를 이미 지나간 단순한 역사로 치부하기 보다는 과거 속에서 현재의 모습을 발견해내고, 미래를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성장일로를 걷던 한인이민교회가 정체기에 들어섰다. 한인이민교회는 정체기를 지난 후 마이너스 성장의 길을 갈 것인가,

---

[104]http://www.oikozoe.or.kr/bbs/read.cgi?board=doc&nnew=2&y_number=22.

[105]김연택, 57.

[106]John G. Davis, *예배와 선교*, 김소영, 홍철화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15.

중흥기로 들어설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과거 하나님이 교회와 인간 사이에서 이룬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며, 한인이민교회는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이하기 원한다.

(1) 초대교회(주후 2 세기 ~ 3 세기)

1세기 예수 당시의 예배형태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회당예배의 형태는 앞서 성경 역사 속에서 이미 살펴 보았다. 이후 2세기와 3세기 동안에 로마의 핍박이 절정에 이르면서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어 카타콤(catacomb)을 중심한 비밀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의 예배는 기독교적 순수성을 지닌 예배로서 새로운 결속과 의미를 찾게되었고, 교회의 조직과 예배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107] 초대교회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예배의 형태가 점차 굳어져 의식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경직된 예배가 아닌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예배였으며, 기도의 예배였으며, 제사장의 집례를 구경하는 제사장적 예배가 아닌 예배자들이 참여하는 예배였다. 뿐만 아니라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설교의 예배였으며,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 감명적, 내적인 예배였다.[108] 반면에 초대교회의 예배에서는 회중들이 지나치게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있었다.[109] 그래서 지나친 참여가 예배를 방해하였기에 사도

---

[107]William D. Maxwell, 81.

[108]Ilion Jones, *복음적 예배의 이해*, 정장복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109.

[109]고린도전서 14 장.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 절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초대 교회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지금 행하시는 일, 행하시기로 약속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10] 특히 신구약 중간기 이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회복된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다. 아울러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의 내용에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4'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락을 취하며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 한 목소리로 연합하여 노래 부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111] 이러한 제안은 초대교회의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 찬양의 내용을 대변해 주고 있다.

주후 133-604 동안 기독교는 지중해 전세계와 라인 강과 다뉴브 강 서부까지 유럽을 확보하고 있는 로마제국의 나머지 부분을 포함할 정도로 확장되었다. 기독교는 로마제국을 넘어 아일랜드(Ireland), 아르메니아 (Armenia), 페르시아(Persia)까지 도달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민족들이 폭넓게 예수에게 충성하게 하였다. 이들 모든 국민들은 그들 고유의 문화적 특성에 기여하면서, 본질적인 통일성을 보존하며 독특한 예배의 형태를 발전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장소와 시대에 따라 종종 유사하게

[110]James F. White, *예배의 역사*, 43.

[111]Cyril C. Richardson, *Early Christian Father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3), 23.

발전하였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112]

초대교회 예배의 완성된 예배형식을 온전한 형태로 알 수는 없다. 현재까지

전해져 오는 여러 사료들을 기초로 그 형태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회당예배를 계승하여 발전하게 된 순서][113]

성경낭독 (Scripture Lection: 딤전 4:13, 살전 5:27, 골 4:16)
시편과 찬송 (고전 14:26, 엡5:19, 골3:16)
기도 (행2:42, 딤전2:1-2)와 회중의 아멘 (고전4:16)
설교 또는 강론 (고전15:1-4, 딤전6:12)
헌금 (고전14:1,2, 로후9:10-13, 롬15:26)
주님의 만찬
(고전10:16;11:23, 마26:26-28, 막14:22-24, 눅22:19-20)
봉헌기도
감사 (눅22;19, 고전11:23;14:16, 딤전2:1)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회상 (행2:42, 눅22:19, 고전11:23,25,26)
중보기도 (요17장)
주기도문 암송 (마6:9-13, 눅11:2-4)
찬송
평화의 입맞춤 (롬16:16, 고전16:20, 사전5:26, 벧전5:14)

당시 회당예배는 예배 순서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내용을 규정하는 의미에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내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의미에 대한 정의를 부여하듯 순서를 정했다는 것이다. 즉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행동과 고백을 단순 정의한 것이 곧 회당예배의 순서가 된 것이다.

기독교는 주후 313년에 로마에 의해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주후 380년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었다. 은밀한 집회가 갑자기 공적인

---

[112]James F. White, *예배의 역사*, 48.

[113]William D. Maxwell, 17.

소집으로 바뀐 것이다. 예배를 새로운 의미로 재계획할 필요가 생겨났다. 주일이 공휴일이 되었으며, 주일마다 공예배가 거행되었을 뿐 아니라,[114] 단순한 예식이 정교한 공연(performances)으로 대치되었다.[115] 자유에서 형식(formula)로 변천하는 경향이 세계 여러 지역의 예전 속에서 발전하였다.[116] 회당예배에서는 의미 있는 내용에 대한 정의를 내림으로 예배의식을 진행하던 것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예배의식의 순서에 맞게 그 내용에 변화를 주고, 의식이 보다 의식적이기 위해 또 다른 요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예배의식의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2세기 말씀의 예전 (The Liturgy of the Word)][117]

성경봉독 (Lection) / 예언서, 서신서, 복음서
강론 (Instruction and Exhortation)
기도 (Common prayers) / 연도 형식 (Litany Form)
시편송과 찬송 (Psalms and Hymns)
평화의 입맞춤 (Kiss of Peace)
봉헌 (Offertory) / 가난한 이를 위한 구제헌금
성찬기도 (Prayer of Consecration)
감사기도 (Thanksgiving: 하나님의 창조, 섭리, 구속에 대하여)
수난의 회상 (Memorial of Passion: Anamnesis)
성물 봉헌 (Oblation fo Gift)
기원 (Invocation) / 축성 (Epiclesis: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중보기도 (Intercessions)
회중의 아멘 (People's Amen)
성체분할 (Fraction)
배찬 (Communion)
폐회 (Dismissal)

---

[114]Harry R. Boer, *A Short History of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Wm. B. 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143.

[115]James F. White, *예배의 역사*, 50-1.

[116]Allan Bouley, *From Freedom to Formula*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1), 93.

[117]William D. Maxwell, 28-9.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던 예배의식이 점차 변화되었다. 기도와 고백은 사제에게로, 찬양은 성가대로 그 주체가 옮겨지기 시작했다. 예배의식에 함께 참여 하던 이들의 참여 비중이 예배의식 내에서 점차 축소되기 시작했다. 예배의식의 참여가 회당예배에서의 참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예배의식의 순서마다 함께 하던 참여가, 진행되는 예배의식 속에서 진행하는 이들을 시각을 이용하여 관람함으로 참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미사 중에 '잘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이론에 의하면 미사 참여는 대개가 시각적인 용어로 이해되게 되었다.[118] 로마교회의 예배는 서방교회의 예배로 대표되는데, 로마의식은 명확성과 간결을 가지고 있다.[119]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생겨난 장엄함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과 경외감을 갖게 했다.[120] 예수가 언급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직접적인 예배의식 내에서의 참여가 아닌 인간의 감각 중 시각을 이용한 대리 만족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2) 종교개혁 이전(주후 4 세기~15 세기)

중세는 그레고리 1세 (Gregory I, 주후 540-604)가 교황으로 즉위하던 주후 590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주후 1517년까지의 약 1000년간을

---

[118]Margaret R. Miles, *Image as Insight* (Boston: Beacon Press, 1985), 95-125.

[119]박은규, 73.

[120]Bard Thomson, *Litergies of the Western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41-2.

말한다.[121] 중세는 크게 세 시대로 나눌수 있다. 제1기는 주후 4-10세기 까지이며 전파기라 할 수 있다. 초기시대는 주후 592년 교황 그레고리 1세로 시작하는 교황권의 확대로부터 주후 800년 신성 로마 제국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중세교회의 선교와 수도원제도가 확립되었다.[122] 이 시기에는 기독교가 지중해 주변에서 중부 유럽으로 나아가서 영국을 넘어 북쪽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인종적으로는 헬라와 로마에서 게르만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제2기는 제패기라 할 수 있는 주후 11-13세기이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해 학문과 건축 그리고 수도원이 절정에 이른 때이다. 제3기는 주후 14-15세기까지의 붕괴기라 할 수 있는 말기이다.[123] 중세의 교회는 로마제국의 멸망과 비잔틴 왕국의 등장, 그리고 교황권의 강화, 십자군 전쟁 등으로 대변된다.

중세 시대는 예배의식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확실히 성숙기, 혹은 발전기라고 할 수 있겠다. 교황 그레고리 1세가 그의 이름을 딴 그레고리안 성례집(Gregorian Sacramentay)과 그레고리안 챤트(Grogorian Chant)를 발간한 것을 정점으로 교회의 예배는 어느 정도의 표준적 형태를 갖기 시작하였다.[124] 개신교 예배는 로마 카톨릭과 중세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 양 교회는 서방교회의 형식들을 유산으로 물려 받았다.[125] 그리고 주후 6세기 이후,

---

[121]중세교회사, http://www.kwangmun.org/history-main/middle-1.htm

[122]중세교회사, http://www.kcm.kr/dic_view.php?nid=39340.

[123]중세교회사, http://www.theology.ac.kr/institute/data-coop/dwE7.htm

[124]중세 교회의 예배,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2gqES

[125]James F. White, *예배의 역사*, 101.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예배가 점차로 차이를 보이며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동방교회의 예배는 보다 심미적이고 미학적인 특징을 가지며 풍부한 의식들을 발전시켰다.

반면에 서방교회의 초기예배는 지나친 의식을 배제한 채 단순하게 진행되었다. 서방교회 예배의 큰 특징은 장엄함에 있다. 비록 단순하였지만 장엄함에서 나오는 아름다움과 하나님 임재의 느낌 등은 서방교회의 예배를 살아있게 한 중요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방교회의 예배도 점차 복잡한 순서들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성체를 들어올리거나, 종을 울리고, 촛불을 사용하며, 향을 사용하며,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의식들이 주후 5세기가 넘어서면서 서방교회의 예배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주후 11세기에 이르러 니케아 신조(the Nicene Creed)가 만들어지면서 예배안에서 신조를 사용하는 순서도 포함되었다.[126] 이후 신조가 중시되면서 예배 속에 신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지며 의식화 되었다.

이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성례전이다. 초대교회 의식 속의 성례전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구속의 은총을 상징했다. 이후 성례전은 중세에 이르러 또 하나의 제사로 인식이 되어 그 효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127] 또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서를 봉독할 때 일어서는 것, 축성할 때에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성체 거양할 때에 바라보는 등의 행위에 의미를 두었다.[128] 예배자는

---

[126]"중세 교회의 예배,"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2gqES

[127]Ibid.

[128]James F. White, *예배의 역사*, 120.

사제가 이러한 행위들을 예배 속에서 진행하는 것을 바라보며 일체감을 느끼고, 예배자로서의 자기만족을 가졌다. 반면 동방교회의 성찬예배는 교제의 행위인데 반하여 서방교회는 화목제사의 관념이 지배적이다.

동방교회와 서방 교회의 양대 의식은 결국 설교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었고, 동방교회의 경우 신비적 의식화된 예배로, 서방교회는 화체의 연극이 진행되는 구경거리가 되었다.[129] 이러한 의식 중심의 예배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응답을 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설교가 예배의식화 된 것도 이 시기이다. 브릴리오스(Brilioth)는 중세시대 설교의 기본적인 유형은 예전적이었음을 강조한다. 이어서 그는 미사의 장엄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사제는 해당일에 적합한 성구를 석의해야 했다고 말한다.[130] 당시의 설교는 실천적인 적용을 지행하는 주석설교였고, 다양한 석의방법이 사용되었다.[131] 이렇듯 중세시대 교회의 예배는 현재 기독교 예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당시에 행해지던 예배의식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평신도의 참여가 사라지고, 사제들만의 예배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속 정치와 연결이 되면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세속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보다 정치 등의 신앙

---

[129]Raymond Abba, 29.

[130]Yngve Brilioth, *A brief History of Preaching* (Philadelpia: Fortress Press, 1965), 92.

[131]James F. White, *예배의 역사*, 136.

외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 더불어 여러 신조의 유입으로 의식에 중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 교회사의 암흑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종교개혁 이후 (주후 16 세기~19 세기)

16세기 르네상스의 물결 속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은 초대교회의 원래적 메시지와 커뮤니케이션의 회복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132] 그 중에서도 쯔빙글리(Zwingli)는 예배의 개혁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교황권이나 공로사상, 고백성사, 면죄, 사제직 등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했다.[133] 그는 예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재현이나 성상의 사용을 극구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그의 극단적인 개혁은 예배 가운데 오르간을 비롯한 제반 악기의 사용, 시편 교독을 대신하는 회중들의 찬송들을 모두 삭제한 것에서 나타난다. 반면에 그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써 성경봉독과 기도와 죄의 고백, 그리고 설교만을 강조한 예배형식을 내세웠다.[134] 초기에 이루어진 예배의식의 개혁은 로마 가톨릭의 예배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사제 중심의 예배의식에서 성경과 예수 중심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예배의식으로의 회중의 참여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로마 가톨릭에 대한 반대로

---

[132]김용복, "공동체 운동과 커뮤니케이션,"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5 월호), 82.

[133]Franklin M. Segler, 58.

[134]정장복, *예배학 개론*, 104.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135]라고 말한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고상한 기회이다.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마음의 자세와 내적인 면을 강조하고 더 중요시 여긴다.

이와 같은 예배의식 내의 구분된 예배참여는 동서방 교회를 막론하고 수 세기를 걸쳐 정착되었다. 교회사에서 이러한 예배의식에 대한 변화의 시도가 있었으나 제도화된 교회 앞에서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시도에서 멈춰 사라졌다.

주후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구교와 신교 사이에 예배의식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예배의식은 사제의 역할이 축소된 것 외에 내용적으로는 큰 변화가 나타지는 않았다. 이후 구교와 분리된 신교는 계속해서 예배의식에 변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칼 융(Karl Jung)은 종교의 신화적 요소는 무의식 세계와 의식세계를 잇는 하나의 다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식세계 속에 있는 인간이 무의식의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신화적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의 매체는 상징(symbol)이 할 수 있다고 했다.[136] 이렇듯 종교개혁 이후 교회는 나름대로 예배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고 끊임없이 적용했다.

---

[135]Donald Macleod, *Presbyterian Worship; Its Memory & Method* (Richmond: John Knox Press, 1966), 17.

[136]박성원, "21 세기를 앞둔 교회 예배학의 새로운 지평," http://www.oikozoe.or.kr/bbs/ read.cgi?board=doc&nnew=2&y_number=17.

주후 17세기 영국에서 나타난 퀘이커(Quaker) 교회는 이러한 제도적 교회에 변화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퀘이커 교회는 아무런 가시적인 상징이 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긍정하였다. 그들은 전통적인 형태를 거부했다. 이들은 예배가 예전(liturgy)으로 규정된 형식이거나 또는 편리한 생각이나 이끌리는 대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기도들이거나 간에, 그것들은 다름 아닌 미신이요, 자의적 숭배이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런 우상 숭배로 여겼다. 세례에 있어서도 이들은 가시적인 것이 아닌 '순수하고 영적인 것, 즉 성령과 불세례를 추구했다.[137] 이들은 언제나 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경험코자 했다.[138] 아울러 이들 모임의 큰 틀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였다.[139] 그리고 이들을 통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간에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갔다.[140] 이러한 퀘이커 교회의 예배의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퀘이커 교회가 추구한 예배의 형태와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의 예배가 형식화 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갖는 현시대에 스스로를 향한 변화의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퀘이커의 예배의식은 역사적 관습에 의해 속박될 필요가 없었다. 이들은

---

[137]Barclay, *An Apology for the True Christian Divinity* (Manchester: William Irwin, 1869), 257.

[138]Eric W. Johnson, *Quaker Meeting: A risky business* (Bittsburgh: Dorrance Bublishing Co. 1991), 94.

[139]Jone Fletcher, "A Quzker speaks from the black experience." Friends Journal. Retrieved from http://www.friendsjournal.org

[140]Eric M. Martin, "Deep, tall, and wide. Friends Journal." Retrieved from http://www.friendsjournal.org.

오히려 예배에 있어서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예배의 시금석은 주로 비교인들인 회중 가운데 회심자를 생산해 내는 효율성이었다. 이러한 이들의 신앙 형태는 후에 많은 신앙부흥운동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은 받은 신앙부흥운동가들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놀라운 신앙부흥이 일어났으며, 미국의 개신교 예배를 지배하는 예배순서가 발전하기도 하였다.[141] 퀘이커 교도들은 예배에서 회중은 예배의 각 순서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예배해야 하는 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142] 이들은 모든 예배의식을 의미에 중점을 두었다. 단 하나의 의식이라도 아무 의미없는 순서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겼다.

퀘이커교의 예배의식에 대한 변화는 일반적인 예배의식에 그치지 않았다. 초대교회부터 예배의 중요 내용이었던 세례의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례가 하나의 의식이 아닌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의 예배의식에서는 방관자가 없도록 했다.

(4) 주후 19 세기 이후

주후 19 세기 이후 개신교의 예배는 포괄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을 보면 예배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확산과 예배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 일치의 증가를 말할 수 있다.[143] 특히 주후

---

[141]James F. White, *개신교 예배*,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306.

[142]조기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기도생활 (1998. 5 월호), 19.

[143]James F. White, *예배의 역사*, 202.

1700 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주후 16 세기 종교개혁기에 견줄만한 예배에 대한 재정립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조의 영향으로 합리성을 바탕으로 예전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다. 칸트(Immanel Kant)는 자신의 책을 통해 기적을 믿는 믿음, 신비를 믿는 믿음, 은혜의 수단을 믿는 믿음을 잘못된 믿음으로 칭하며, 성례전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전통적 견해를 혐오하기도 했다.[144] 그러나 이러한 계몽주의의 사조 속에서도 성서의 본질을 지키고, 예배의식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요한 웨슬리(John Wesley)를 통해 감리교회가 나타나면서 종교적 열정을 회복했다.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 계속 되어 온 예배의식의 변화는 20세기에 오면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예배의식의 변화는 기독교 내의 각 교단별로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장로교회의 예배는 개혁교회의 전통과 유산을 이어받아 말씀 중심의 예배를 취하고 있어서 비예전적인 예배로 일컬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장로교 예배는 주로 예배지침서에 의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 예배 지침서는 주후 1906년 헨리 다이크(Henry V. Dyke)에 의해서 발간되어 1928년과 1944년, 1970년에 개정판(The Worshipbook) [145]이 발간되었다. 이 예배서에 수록된 주일 낮 예배순서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146]

---

[144]Immanuel Kant, *Religion Within the Limits of Reason Alone* (New York: Harper & Row, 1960), 182.

[145]박은규, 11.

[146]The Joint Committee on Worship for Comberland Presbyterian Church, *The Worshipbook* (Philadelphia: The Westerminster Press, 1970), 21.

기본 구조 (The Basic Structure)

예배에의 부름
경배 찬송
죄의 고백
용서의 선언
응답송
조명을 위한 기도
구약성서 봉독
신약성서 봉독
설교
신경 (신앙고백)
회중의 기도
평화의 인사
봉헌
성찬으로의 초대
감사기도
주의 기도
영성체
응답송
찬송
위탁의 말씀 (Charge)
복의 선언

반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는 예배에 있어서 말씀과 성찬의 균형을 강조해서 될 수 있는대로 자주 성찬식을 거행할 것을 주장했다.[147]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미연합감리교회가 1965년 발간한 예배서(The Book of Worship) 에는 다음과 같은 주일 낮 예배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148]

오르간 전주
예배에의 부름
찬송

---

[147]박은규, *기독교 입문* (대전: 목원대학출판부, 1982), 298.

[148]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e Book of Worship* (Nashville: The United Methodist Bublishing House, 1965), 3-6.

기도 (고백기도 또는 주님의 기도)
시편
찬양
성경봉독 (구약과 서신서나 복음서 중)
신조
목회기도
헌금
찬송
설교
제사직에로의 초대
찬송
축복기도
오르간 후주

개신교 예배는 구교의 '듣는 예배'에서부터 '보는 예배'로의 개혁이다.[149] 개신교 예배에서 순서와 활동들이 단순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기 위함이다. 모든 의식은 제한된 반면에 전체 회중이 보고 이해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주후 20 세기의 또 다른 중요한 전통은 오순절의 기원이다. 오순절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실재(reality)를 경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150] 성령의 은사들은 모든 예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성령이 강조된다고 해서 성례전이 무시된 것은 아니었다. 주후 20 세기 이후 다시 설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영국 국교회의 설교가 15 분 분량의 도덕으로 구성[151]되어 있었다. 이러한 형식에 웨슬리와 죠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는

---

[149]James F. White, *개신교예배*, 107.

[150]James F. White, *예배의 역사*, 207.

[151]Ibid., 239.

영국과 북미에서 강단의 기능과 종교적 삶을 변화시켰다.[152] 이들의 영향을 받은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을 통해 영국과 미국에 부흥운동을 주도했다. 이러한 부흥운동은 전도와 선교로 이어져 전세계로 기독교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현재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는 이 시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배개혁의 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대교회는 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변화해야 한다.

[152]Horton Davies, *Worship and Theology in Englan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143.

III. 미주 한인이민교회의 예배 커뮤니케이션

1. 현대 기독교 예배의 다양성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153] 바람직한 교회는 의미 있는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는 동력을 얻는다.[154]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가치있는 것이다. 예배는 인간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를 깨닫고 성령의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이다.[155] 교회와 기독교인은 가장 가치있는 예배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논자는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대한 예배에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분명히 해야 미래 교회의 다양한 예배 문화 속에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목적을 잊고, 존재의 이유과 가치가 흔들릴 때 모든 것은 쓸모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의 예배 역시 동일하다. 교회가 복잡하고 다변하는 사회 속에서 존재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그 존재의 가치를 의심받게 된다.

---

[153]Ramond Abba,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경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4), 9.

[154]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11.

[155]Robert G. Rayburn, *예배학*, 김달생, 강귀봉 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27.

사회 속에서 교회의 존재 가치는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지는 않다. 교회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배와 전도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구현과 봉사 등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앙 외의 이러한 역할은 교회 뿐만 아니라 사회 속의 다양한 기관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교회가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회 속에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 받음과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존재해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가치관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교회는 사회 봉사 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이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선순위에 대하여 혼란이 올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인간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무수한 언어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다양성은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보편적인 인간사회 전반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또한 기독교의 다양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광범위한 현상에 해당된다. 인간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예배의 여러 가지 표현 방식 속에 나타난 통일성을 되짚어 보는 동시에, 기독교예배에 대한 경험의 방대한 다양성을 지적할 수 있다.

예배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문화적 배경 안에 있으며, 이는 특정 교단의 문화나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함을 인식해야 한다.[156] 논자가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예배의 형태적인 정의가 아닌 내용적인 정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동일한 내용이 다양한 형태의 옷을 입고, 다양하게 표현된다고 본다. 교회는 이와 같은 변화의 다양성을 거부할 때, 동일한 시간대의 이질적인 부분으로 남겨져 결국 사회 속에서 외면을 당하게 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충만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단지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157]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는 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필요가 달라짐에 따라 늘 변해 왔다. 그렇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예배 전통이 존재한다. 개신교 예배가 풍성한 이유는 예배가 다양하고, 그 다양성으로 인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158] 이것이 기독교 예배가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의식 개념을 통해 관계를 이루는 방법이다.

주후 21세기 현대 예배의 새로운 유형은 예전적인 예배, 찬양예배, 구도자

[156]Eddie Gibbs, *Next Church*,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0), 179.

[157]Wilson A. Tozer, 18.

[158] James White,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 212.

예배라는 세가지 유형을 보여준다.[159] 세가지 유형을 내용적으로 구분을 하면 구도자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 기초적인 소개를 하고, 찬양예배는 세례 받은 새신자들을 가르치며, 예전적 예배는 신앙인들을 양육하여 강하게 만든다.[160] 현대교회는 한 교회에서 한 가지 형태의 예배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이미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인 다양성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 한 교회 속에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계층에 대해 교회는 예배의 내용적 정의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다양한 형태적 정의를 재발견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적용에 대해 현대교회는 '예배갱신,' '예배혁신'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예배갱신은 초기 기독교 예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시대에 따라 '예배갱신'은 교회에 의해서 혹은 예배자 즉, 회중에 의해서 갱신되어졌다. 예배에 대한 교회의 중앙집중식 통제가 예배갱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갱신을 완전히 멈추는 데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161] 교회는 계속해서 올바른 예배를 위해 변화를 시도했고, 변화했다.

한편으로는 '예배갱신'이 교계에서는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예배갱신인가?'라는 물음이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에게 논란이 되고 있다.

---

[159] Daniel Benedict and Craig Miller, *Contemporary Worship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ashville: Discipleship Resources, 1994) 191.

[160] The General Board of Discipleship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Daniel T. Benedict, Nashville, TN), www.gbod.org 참조.

[161]James White,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 210.

하지만 “인간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나 세상에 살고 있다(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162]는 반 틸(Van Til)의 언급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떨어져 구별되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 없다.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예배는 의식과 형식에 국한되지는 않는다.[163] 그렇다고 예배에는 전혀 형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경건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성장에 도움이 된다.[164] 예배의 형식을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서 완전히 배재 할 수 없다.

예배의 형식은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인 예수의 나심, 생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을 입증하고 그 뜻을 전달하는데 필요하다. 비록 예배에 있어 외적인 형식이 영적인 것에 항상 예속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영적인 예배는 그 내용을 잘 드러나게 하는 형식을 필요로 한다.[165] 교회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예배를 추구한다고 모든 예배의 형식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무엇이 올바른 예배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가는 예수 당시로부터 시작하여 사도들과 교부들, 중세와 종교개혁, 그리고 주후 21세기 현재의 교회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166] 교회와 목회자는 역사 속에서 ‘올바른 예배’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현재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는 무엇이

---

[162]Henry R. VanTil, *The Calvinistic Conception of Culture* (New York: Baker Book House, 1992), 1.

[163]Franklin M. Segler, *예배학원론*, 정진황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79), 22.

[164]Massey H. Shepherd Jr., *예전학*, 정철범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59-60.

[165]Ibid., 209.

[166]허정갑, “예배갱신,” 21 세기 이민교회의 비전 세미나 자료, 10.

'올바른 예배'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연구과 적용을 거듭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예배는 각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변하게 된다.

서방교회에서 '예배지침(rubrics)'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어떻게(how),' 즉 어떻게 정해진 예배지침과 법규규칙에 따라 예배가 수행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이 모아졌었다. 그러나 동방교회 예배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만(Alexander Schmemann)은 이러한 연구방법이 예배와 신학이 분리된 서방교회의 한계라고 지적하면서, 예배학 연구는 '무엇(what),' 즉 예배에서 무엇이 행해지는가를 연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독교 예배학이 다루어야 할 모든 범위들 즉 교회력과 관련되어 한 해의 예배를 구성하는 예배의 구조, 주일예배 및 매일 드리는 성무일과로 구성되는 예배의식, 성만찬 예식, 기독교 입교예식과 결혼 및 장례예식 등의 통과의례 및 목회예식, 안수식과 여러 특별 예배들, 그리고 예배 공간과 예배음악, 토착화 등에 관한 모든 부분 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예배학 연구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로마카톨릭 예배 연구에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는 주로 인쇄된 예배의식문에 관한 연구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성만찬예식문에 관한 연구였다. 1936 년에 초판이 나온 이후 1980 년대까지 50 년 이상 꾸준히 인쇄된 윌리엄 맥스웰(William Maxwell)의 '기독교 예배 개요(An Outline of Christan Worship)'와 1961 년에 출판된 톰슨(Bard Thompson)의 '서방교회 예배의식(Liturgies on the Western Liturgy)' 등이 이를 말해준다.

반면에 개신교 예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즉 예배의 회중이다. 회중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회중이 중심에 위치하며, 회중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에는 예배의 환경적 요소로서 경건, 시간, 장소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배의 활동들로서 기도, 설교, 음악이 위치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able>
<tr><td>경건</td><td rowspan="3">인간</td><td>기도</td></tr>
<tr><td>예배의 시간</td><td>설교</td></tr>
<tr><td>예배의 장소</td><td>찬송</td></tr>
</table>

표 1. 기도, 설교, 음악의 예배활동으로서의 위치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은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이 온통 사회를 뒤덮고 있는 변혁의 시대이다. 주위에서는 교회가 변해야 한다고 직간접의 압력을 가해오고 있으며, 교회는 분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대명제에 동의하면서도 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7 세기 초반부터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철저히 시행하면서 교회의 자유로운 형태와 예배의식을 인도해 나갔다. 여기에 1800 년경부터 발생한 대각성부흥운동은 탈의식의 예배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1982 년 남미에 있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모였던 세계교회협의회의 '신앙과 직제 위원회' 총회에서 채택한 '세례, 성만찬, 교역' 이라는 소위 '리마문서'에 있는 '리마예식서'를 통하여 예배 갱신의 강한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다. 리마예식서에 나타난 예배순서[167]는 다음과 같다.

[개회의 예전]
- 개회찬송 (혹은 시편 응답송과 송영)
- 인사
- 죄의 고백
- 용서의 선언
- 자비의 연도
- 영광송 (교독이나 송영으로)

[말씀의 예전]
- 오늘의 기도
- 구약성서 봉독
- 명상의 시편
- 사도서신 봉독
- '할렐루야' 영창
- 복음서 봉독
- 설교
- 침묵
- 신앙고백
- 중보의 기도

[성만찬의 예전]
- 준비 기원
- 인사의 교환
- 처음 기원
- 삼성창
- 성령 임재의 기원 (I)
- 성만찬 제정사
- 기념사
- 성령 임재의 기원 (II)
- 추모의 기원
- 마지막 기원
- 주의 기도
- 평화의 인사
- 분병례
- 하나님의 어린양
- 성만찬에의 참여
- 감사의 기도
- 폐회 찬송

[167]http://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wcc-programmes/unity-mission-evangelism-and-spirituality/spirituality-and-worship/the-eucharistic-liturgy-of-lima.html

분부의 말씀
축복기도

‘리마예식서’는 성서와 초대교회의 전승, 역대 교회의 유산, 그리고 오늘의 예배신학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치려고 하지 않았다. 리마문서의 가치는 각 교단의 다양성이 부인된 일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수렴과정에 있다. 한국교회의 예배 예식은 이러한 세계 흐름과 같이 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전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다. 이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20,840 명의 해외 선교사 파송수[168]로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성장한 한국교회는 또 한번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변화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이에 본 논자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한국교회의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시대별 한국교회의 예배 커뮤니케이션

1) 초기 한국교회의 예배 커뮤니케이션(주후 1970 년대 이전)

개신교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접촉 할 당시는 천주교의 방법과 달랐다. 개신교는 예전적 접근 보다는 성서, 회심을 목적으로 한 청교도 신앙을 가진

[168]채문주, “파송된 한국 선교사 169 개국 2 만 840 명,” 기독교타임즈 (2010 년 3 월 17 일자).

선교사들에 의한 전도설교 중심의 예배가 형성이 되어 한국에 들어왔다.[169] 이들은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을 통해 선교사가 되었다. 이들의 신앙적 배경은 근본주의적 신앙을 바탕으로 설교지향적인 예배를 추구했다.

이러한 신앙의 바탕에 세워진 교회의 예배는 단순한 순서를 가지고 있었다. 1895년 장로교선교부에서 발행된 '위원입교인규도'의 14,15쪽에 의하면 당시 한국교회에서 행해진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170]

찬송
기도
성경봉독
기도 (회중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대표로 함)
찬송
설교
기도
봉헌
찬송

한국교회의 예배에서 오늘날까지도 설교가 예배의 맨 뒷부분에 위치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예배가 아직도 19세기 미국 개신교의 영향하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1905년의 미국 '감리교 찬송가'에 나타난 예배순서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당시의 주일 낮 예배순서는 오르간 주악, 찬송, 사도신경, 기도, 주기도문, 찬송, 구약성경 봉독, 송영, 신약성경 봉독, 광고, 헌금, 찬송, 설교 그리고 초청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예배순서는 성경봉독이 두 개라는 사실만 제외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느 예배순서와 비교해도 구별이 안 될

---

[169]박성원.

[170]Ibid.

정도이다.[171] 초기 한국교회 예배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성경과 설교가 위주였으며 , 선교위주로서 엄격한 청교도적 영향 아래 형성되었고, 한국의 전통문화와는 상당한 대결구도를 가지고 있었다.[172] 이러한 대결구도는 초기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있어 장애가 되기도 하였다.

선교사들의 예배에서 한국인들의 예배로의 전환점은 주후 1907 년의 대부흥운동으로 꼽는다. 이때부터 한국 특유의 예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박아론은 그의 보수적 토착화신학사상을 소개하면서 주후 1906 년에 길선주 목사를 통하여 처음으로 시작하여 100 년 이상 이어져 온 새벽기도회에는 신비(mystery), 고요(tranquility) 그리고 생기(vitality)의 세가지 특징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173] 이러한 주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단지 당시의 예배 요소에서 성령의 역사가 예배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주후 1907 년 대부흥운동은 비예전적 예배, 단순한 예배로 한국교회 예배 전통을 낳았고 예전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 결국 한국교회는 주정주의적 특징을 갖게 되고 이성적 사고보다는 감성적 느낌이 중요하였다. 이후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예배자의 감정적 느낌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174] 결국 한국교회의 예배 초기에는 예배자의 감성이 중요시 됨으로 감성에 호소하지 못하는 예배의식은 축소 혹은 삭제되게 되었다.

---

[171]조기연, “한국 개신교 예배의 역사적 기원과 신학적 정체성,” 신학과 선교 28 집 (2008), 203.

[172]박성원.

[173]박아론, *새벽기도의 신학* (서울: 세종출판사, 1974), 64.

[174]박성원.

2) 성장기 한국교회의 예배 커뮤니케이션(주후 1970 년~1980 년대)

이 시기는 한국교회의 부흥 성장기라 할 수 있다. 서방교회가 종교개혁 이후로는 성서중심의 교회가 되었다가 제3의 시대에 이르면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요아킴 플로리스(Joachim Floris, 1132-1202)의 예언대로 성령의 시대를 맞는 듯 성령운동이 한국교회를 강타했다.[175] 한국교회가 예배자의 감성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어, 예배자가 느끼는 감동의 차이로 인해 성령운동은 한국교회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순절 교단을 중심으로 미국의 실용주의적 태도의 영향을 받아 부흥회-전도집회가 대중집회의 주를 이루고, 이는 곧 교회의 주일예배에 영향을 줬다. 로버트 슐러(Robert Schuller)와 오럴 로버츠(Oral Roberts), 제리 팔웰(Jerry Falwell) 등 텔레비젼 복음전도자들이 이 전통에 속해 있다.[176] 당시 예배시간에 불리는 찬송 역시 부르기 쉬고 기억되기 쉽도록 단순화 해야 했다.[177] 찬송가의 가사도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등 1인칭 단수 대명사가 주종을 이루었다.[178] 이는 예배시에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의 이름과 위대함을 높여 드리는 내용의 가사를 가지고 있는 경배송에서 예배자 개인의 고백과 정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내용의 가사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예배가 주를 이루다보니 성가대의 오남용이 있었다. 예배 중에

---

[175]Ibid.

[176]James F. White,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 191.

[177]Ibid., 178-9.

[178]Ibid., 180.

불리는 찬송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회중찬송은 대부분 개인의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노래하는 내용이 많았다. 성가대의 음악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회중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여흥(entertaining)'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었으며, 음악적인 호소를 통하여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모습까지 보였다.[179] 이 시기의 성령운동이 주도하는 예배는 열정적인 박수와 찬송을 동반하는 무형식의 축제성(festivity)을 띠었다. 뿐만 아니라 방언과 신유, 이적적 사건 등을 통하여 일체감과 공동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였다.[180] 찬양을 예배의식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의식의 일부분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칭송이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찬양을 통해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찬양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 찬양은 정화의 작용과 함께 속 사람을 정결케 한다. 또한 찬양을 통해 영적인 상처와 육체의 병이 치료되기도 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한다. 신약에서 48번, 구약에서 351번 '찬양하다(praise)'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단어의 목적어는 언제나 여호와임을 알 수 있다.[181] 구약과 신약 최초의 노래는 찬송이며 그 찬송은 모두 구원에 관한 것이다. 이를 개인적으로 적용해보면 죄로 인해 죽었던

---

[179]Ibid.,185.

[180]박성원.

[181]김제은, "찬양할 이유있네," 빛과 소금 1998 년 9 월 (서울: 두란노서원), 54.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다.[182] 찬양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치기에 기도를 2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예배는 '설교'가 중심이 되었으며, 보통 일요일 예배 시간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예배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멘' 등의 반응을 강요하거나 요란하게 자기를 과시하는 설교자[183]가 등장하는 부작용도 초래되었다.

한국교회는 주후 1960 년대부터 1980 년대까지 10 년마다 숫적 배가를 이룰 만큼 급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은 세계교회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한국교회만의 자랑이다. 주후 1992 년 8 월 '뉴욕타임즈'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 50 대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가 22 개가 있다.[184] 특히, 장로교 개혁측의 경우 6 만에서 61 만으로 무려 10 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은 각 교단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교세확장에 전력을 다한 결과라 할 것이다.[185] 그리고 이 시기에는 미국교회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예배에 대한 견해가 본격적으로 한국교회에 소개된다. 그리고 주후 1962 년의 바티칸 제 2 공회에서 시작된 예배갱신의 영향으로 새롭게 소개되는 미국교회 예배 관련 도서들이 함께 소개되었고, 이는 한국교회 각 교단의 예전적 예배갱신을 시도에 영향을 주게

---

[182]홍정표, "성경 속의 음악과 찬양," 빛과소금 1988 년 9 월 (서울: 두란노서원), 56.

[183]James F. White,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 183-4.

[184]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22-34.

[185]노승찬, "각 교단의 교회확장 계획의 성과와 전망," 목회와 신학 93 년 7 월 (서울: 두란노서원), 80-99.

된다.[186] 기존의 예배의 목적에서 벗어난 잘못된 예배자 중심의 한국교회의 예배는 다시 한번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예배의 방법이 아닌 본질에 눈을 돌린 한국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예배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3) 현대 한국교회의 예배 커뮤니케이션(주후 1980 년 이후)

주후 1950대까지의 한국교회의 역사를 제1물결의 시대라 한다. 이는 기독교의 전래와 태동기라 본다. 이후 주후 1959년 대한예수교장로회가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면서 한국교회의 제2물결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물질주의와 인간우월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쟁, 자기보전, 소비 등 물질주의, 사회와의 유리 등을 낳게 되었다. 이어서 주후 1980년대 후반부터 제3물결이 몰려들었다. 이는 균형과 연결을 강조하며 협력에 민감하게 한다. 이로인해 교단 간의 협력과 통합의 모색이 활발해지며 연합과 일치를 위한 움직임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187] 한국교회 예배순서에 나타난 특징은 설교와 성만찬의 조화 있는 예배라기 보다는 설교중심의 예배에 있으며,[188] 예배인도자 중심의 예배와 은사와 경험을 강조하는 예배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부터, 특히 주후 1907년 이후부터는 설교와 설교자가 예배의 전체를

---

[186]허정갑, "예배갱신," 21 세기 이민교회의 비전 세미나 자료집, 4.

[187]Carl F.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명성훈 공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23-6.

[188]정일웅, *기독교예배학개론* (서울: 솔로몬, 1993), 288-95.

좌우했기 때문에 예배는 설교자의 권위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있었다. 예배는 설교자에 의해 주도되고 회중은 설교자의 선포에 모든 예배적 참여를 국한시켰다. 이러한 전통은 이후에도 회중으로 하여금 설교에만 참여하면 예배는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도의 극단적인 현상을 낳기도 했다.[189] 이는 곧 예배에서 설교를 제외한 나머지 의식에 대한 약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예배는 회중의 주관적 예배의 경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친밀한 교제와 치유를 약속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찾아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갈망을 본다. 서구 예전의 기초나 종교적 권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현대인들은 대형집단의 축제들과 소그룹 경험들을 갈망하는데, 이 경우 이 둘은 모두 개인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거나 관심을 고양시키는 데 자발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190] 현대인들은 예배의식 속의 설교를 통한 주관적 예배의 경험 보다는 예배 혹은 집회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격을 추구한다.

지난 시대와 달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원한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가족을 중심으로 한 교회생활에서, 이제는 자신과 동일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개인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교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이해와 역사, 과거의

---

[189]박성원.

[190]Wade Clark Roof, “The Changing American Religious Landscape and Implications for Ritual,” paper at a meeting of the North American Academy of Liturgy in January, 1994.

예배장소에서 이제는 사회 속 개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공동체적인 교회로 이해의 방향이 변화되고 있다.[191] 한국교회는 현대인들의 의식에 맞는 전통적인면서도 현대적인 예배를 추구해야 한다.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예배란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며, 역사적이고, 실천적인 예배라고 웨버(Webber)는 말한다.[192] 현대예배의 스타일과 모델은 다양하다. 전통도 한때는 현대적이었고,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이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193]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는 교회 구성원의 성격을 파악하여 가장 알맞는 예배의 모델을 찾아 적용하기 위해 연구해야 한다.

주후 20세기 초에 또 다른 주요한 예배의 전통인 오순절 전통의 기원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reality)를 경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초의 후기 계몽주의였다. 성령의 은사들은 모든 예배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활동 증거가 이미 매우 압도적이기 때문에, 성례전들은 약간 단조로워 보일 수 있다.

현대교회도 일치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성을 고무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194] 예전이 없는 예배는 무방비 상태가 되기 쉬우며 영적인 의미가 없는 예전은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한편으로 치우친

---

[191]김연택, 19.

[192]Robert E. Webber, *Worship Old and New*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14.

[193]김연택, 47.

[194]Ibid., 253.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예배에 근접해 갈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실험적 열린예배가 현대교회에 도전을 주는 것이다.

열린예배는 기존의 개념에 대한 상황화를 염두에 두는 예배라고 설명한다.[195] 열린예배라는 말은 예배가 예배의 순서를 맡은 담당자들만이 아니라 회중들을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회중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에 대하여 붙여져야 한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들의 눈 앞에 기독교 예식의 위대한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참회와 감사와 헌신과 찬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96]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예배 순서가 필요한 것이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질서의 예배는 예배자들을 혼동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예배순서는 필요하다.[197]

프랑스의 신학자 윌(R. Will)의 "영(Spirit)이 없는 의식은 죽은 것이고 의식이 없는 영은 삶의 현장과 무관하기 쉽다"[198]는 표현은 타당성 있는 말이다.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신령과 진정(요4:24)'으로 예배하려는 뜨거운 영은 있었으나 신령과 진정이 표현되는 알맞은 의식이 충분치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

[195]문동학, "열린예배의 신학적 이해와 영성," 목회와 신학, 1997 년 4 월호 (서울: 두란노서원), 52.

[196]Raymond Abba, 15.

[197]Ibid., 120,1.

[198]John M. Barkley, *Worship of the Reformed Church* (Richmond: John Knox Press, 1967), 10.

수 없다.

예배의 예전이란 하나님을 경배(adoration)하고 감사하는 성실한 표현을 비롯하여 겸손과 회개, 이웃과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과 수용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 죄의 고백과 죄사함의 선언의 의식은 레이번(Rayburn)이 지적한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서 있는 실존으로서 자아의 모습을 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간구하는 의미 깊은 부분이다. [199]

예전이란 예배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실행되어지는 약속되어진 행동이라고 하겠다. [200] 그것은 개인적이거나 즉흥적으로 드려지는 비예전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교회의 신앙공동체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예배의식을 말한는 것이다.[201] 주후 20세기 초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토대로 받아들여진[202] 한국교회의 경우 예전적인 모습은 찾아 보기가 힘들고, 이런 신앙의 유형을 가진 서양선교사와 한국의 재래문화[203]에 의해 혼합된 예배의 형태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복신앙과 방관자적 입장의 예배를 만들어 냈다.

기독교 예배는 경외심에서 출발하여 용서함을 받아 헌신하는 방향으로

---

[199]Robert G.Rayburn, *O Come Let us Worship*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p.187.

[200]Messey H. Shepherd, 58.

[201]Ibid.

[202]정용섭, “그리스도교 예배의 신학,” 기독교사상, 1978 년 10 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52.

[203]정장복, “기독교 예배의 토착적 표현과 그 전개의 과제,” 기독교사상, 1991 년 11 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7,8.

진행되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아들을 통하여 성령의 영감을 간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204] 예배는 이와 같은 통전적 의식을 통한 한 방향으로 치우지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방법이다.

이 시기에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예배갱신'이다. 예배갱신의 필요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요구되는데 한 가지는 잘못된 예배를 바로 잡는데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예배의 활성화에 있다.[205] 의식에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을 통해 의식이 아닌 그 내용에 더 큰 비중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구원의 고백과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다.[206] 결국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소개되는 '경배와 찬양,' '찬양예배,''열린예배'를 통해 미국과 영국 문화의 대표적인 예배표현을 과감히 도입[207]하여 예배를 활력있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는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드러내 보임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보다 나은 예배를 추구하는 열정을 가진 한국 기독교인들에 의해 미주 한인이민교회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

[204]Thomas M. Oden, *목회신학*, 이기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160.

[205]박성원.

[206]허정갑, 1.

[207]Ibid., 5. 허정갑 목사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를 인터뷰한 내용을 재인용.

3. 한인이민교회의 예배 커뮤니케이션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다. 앞서 언급을 한 것 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208]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 한인이민교회의 구성원인 이민자의 생활은 매우 바쁘고, 여유가 없는 삶인 경우가 많다. 피곤한 일상 속에서 매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본다.

현대 한인이민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귀로 듣는 시간을 예배의 대부분에 할애한다. 그러다 보니 몇몇 성도들은 시간이 흐를 수록 집중도가 떨어져 졸거나, 낙서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후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예배에 참석했다'는 자기만족을 얻는 것에서 그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분명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보다 '예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인이민교회의 예배형태가 설교 중심의 예배형태라는 사실이다.

[208]구약에서의 예배는 현재의 예배와는 구분을 해야 한다. 예배의 원형이기는 하나, '집회'라는 성경이 강조되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이는 회중이 예배시간의 대부분을 '앉아서 설교를 듣는'것을 뜻한다.[209]

한인이민교회들의 대부분이 매주 정기적으로 약 6 회의 예배를 보고 있다. 이는 한국인들의 종교성이 잘 드러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적 기독교의 이민사회 속으로의 연장이다. 이러한 예배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그 중심에 목회자의 설교가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설교가 있으며 예배시간의 대부분을 설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예배에 예배자로 참여하는 성도들은 예배시간의 대부분을 자리에 앉아 귀로 듣고 있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210] 예배는 일방성이 아닌 양방향성의 특성이 있다.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을 향한 말씀의 응답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모든 순서가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는 동일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인이민교회의 경우 한국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해 오던 교인들이 모여 교회에 등록하기 때문에 전입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교회에 나가던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같이하며 봉사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심성을 갖게 되었다.[211] 아울러 한인이민교회는 1세와 2세의 나누어진 두 언어와 두 문화

---

[209]조기연, "말씀과 식탁-과학문명기 새 예배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210]Henry C. Thiessen, 682-3.

[211]김연택, 97.

속에서 한 지붕 밑의 두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통과 변화의 두 갈림길에 앞서 먼저 해결하여야 할 숙제는 1세와 2세간의 수평적 화해이다.

한인이민교회는 이민 1세, 2세, 1.5세간의 갈등 속에 영적지도자의 권위는 위기를 맞고 있는 반면 개인주의적 감상적인 이민신앙은 예배를 신앙이 아닌 종교의식으로서 만들어 가고 있다. 오로지 어느 한 개인의 취향과 감각 속에서 말씀과 성례전과는 거리가 먼 당면한 생존경쟁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현실의 모습이다.

1) 한인이민교회의 특성

한국교회의 교인 감소현상이 한인 이민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다. 크게는 제한된 유입인구와 출석교인의 이동성과 임시성이 그 원인이다. 이는 한인이민교회가 수행하는 여러가지 위로, 도움, 안정, 긴장해소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기능적 대체물의 발달이다. 레저문화는 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가장 발달된 미래형 생활문화이며, 교인의 이동이라기보다 교인감소의 요인일 것이다.[212] 근래에 미국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새들백 교회(Saddleback Church)의 담임목사인 릭 워렌(Rick Warren)은 이웃들에게 교회에 대한 요청을 설문으로 조사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는 “우리는 성경과 배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객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교회는

[212]Carl F. George, 25.

‘창조적이고 영감 있는 예배’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213] 주후 21세기 한인이민교회의 예배에서 어떤 한국의 경건성이 계속 유지되며 표현될지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주일 오전11시가 전통적인 예배의 시간적 요소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인이민교회에서는 어떠한 시간적 요소가 지켜지는가? 이러한 한국교회 주일예배의 시간적 요소의 전통은 지켜지기를 이민자들은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아직 많은 교회들이 미국교회를 빌려 오후예배를 드리고 있다. 앞으로는 자체 교회건물구입으로 예배시간이 오전으로 바뀜에 따라 자유로운 주일오후가 예상되며 아울러 2세교회 그리고 다양한 문화수용의 요구에 따라 여러 스타일의 예배가 주일 오후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주후 1900 년대 초 미국의 많은 불신자들이 불신자 전도중심의 주일 저녁예배에 참석하여 신자가 되었다가, 그 후에는 주일학교를 통하여 성경을 배우면서 신자가 되었다. 그러나 주후 1970 년대부터는 교회마다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성경 공부와 교제가 불신자들이 신앙을 가지는 첫 관문이 되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소그룹 사역을 통해 전도를 활발히 하고 있지만, 주후 1990 년대에 들어와서는 주말예배 또는 주일예배 전체를 전도중심의 예배로 드리면서 교회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214]

---

[213]진미애, “새들백교회는 이렇게 성장했다,” 월간목회 1998 년 4 월(서울: 월간목회사), 60-5.

[214]James E. White, *Opening the Front Door: Worship and Church Growth* (Nashville: Convention, 1992), 16.

이러한 현상은 선교학에서 언급되는‘초문화적 정체화(cross-cultural identification)’[215]으로 어떤 융통성과 조정과 변화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예배형태이다. 예배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며,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 할 수 없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두 가지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예배다. 예배에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기 원하는 자들이 함께 한다. 예배는 이 두 형태의 그룹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예배가 전도의 도구는 될 수 없으나, 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알게 된 이들을 통해 복음은 전달된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10 년간 한국 종교 인구의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개신교의 경우가 둔화율이 제일 컸으며, 또한 각 종교의 이탈률을 조사한 결과 개신교 신자의 이탈률이 66.7%로 제일 높아서 개종자 10 명 가운데 7 명은 개신교인이었다. 또한 향후 교회의 성장은 교회간의 수평이동에 의한 성장으로, 불신자 전도를 통한 수직 성장의 비율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신교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해답을

[215]김연택, 105.

찾는 것이 미래 한국교회 성장의 동력이 된다.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2) 한인이민교회의 예배형태

한국인의 미국 이민역사에서 주후 1970년대와 80년대를 한인 사회의 주류가 이민 온 시기로 본다면, 주후 21세기가 시작된 2000년대는 한인사회에 새로운 한 세대가 형성되어 이민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중요한 시점을 한인사회는 맞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곳에 온 이민1세들은 이제 중년을 넘어 노년의 시기를 바라 보게되고, 이곳에 유아의 모습으로 부모를 따라왔던 어린이들과 이곳에서 태어난 2세들은 청년기를 넘어 장년으로 성장하는 때가 이제 열리고 있는 것이다.[216]

이 변화의 시기는 이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은 이미 변화를 거쳐왔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인 것을 보게된다. 이는 그 변화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그 변화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에 관한 것들이다.[217]

주일예배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우리가 그간 1세 중심으로 너무 치우쳐 있었다는 것을 알게된다. 1세 중심의 교회들은 2세를 위해 교회의 변화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2세를 위한 예배를 몇 가지 형태로 만들게 되었다.[218]

---

[216]http://pwusa.org/zbxe/source/26710

[217]박규태, http://pwusa.org/zbxe/source/26710

[218]http://pwusa.org/zbxe/source/26710

이민교회의 예배를 한 마디로 말하면 '한국에서 이민 온 예배'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후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1970년대의 예배를, 1980년대에 이민 온 사람들은 1980년대의 예배를, 그리고 1990년대에 이민 온 사람들은 1990년대의 예배를 각각 한국에서 가지고 미국에 왔다. 그런데 이민교회 예배의 어려운 점은 이렇게 각각 다른 시대의 예배형태들이 크게는 우리 이민교회들 안에 작게는 한 교회 안에 섞여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렇게 197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이 주류인 교회는 1970년대 형태의 예배를 중심으로, 1980년대 이민자가 주류인 교회는 1980년대 형태의 예배를, 그리고 199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이 주류인 교회는 1990년대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민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은 이민교회의 예배가 주후 21세기로 나아가는데 몇가지 문제를 갖게한다.

이민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민 생활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이기려는 노력의 하나로 고국에서 그들이 가졌던 문화와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곳에서도 똑같이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 예배의 경우도 익숙한 예배만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형태가 자신이 익숙한 것과 조금만 달라도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민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주류가 바뀔 때까지 예배의 변화는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이민교회의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하며 이민교회들의 하나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제 1세 안에서 그리고 2세들과 함께 기도하며 익숙한 나의 형식과 편안한 과거의 모습만을 고집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래야만 모두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219]

1세와 2세가 다른 시간에 각자 따로 예배 드리는 교회 안에서 1세와 2세가 서로 만나 신앙의 유산을 나누거나 1세와 2세가 서로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1세들은 2세들을 위한 신앙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물질적 지원을 하여 2세들만을 위한 영어예배를 만들어주거나 2세 교회를 설립해 주지만 여기에서는 물질적 증여 외에 다른 신앙적 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다. 여기에 1세와 2세가 분리된 교회의 예배형태들이 갖는 문제점들이 있다. 신앙교육은 세대간의 교류 없이 제한된 한 세대 안에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1세들이 받았던 신앙유산들을 생각 해보면 그들은 앞 세대의 누군가가 그들의 신앙생활에 모델이 되어 이민 1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것을 간직하고 있다. 늘 찬송을 부르시며 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던 할머니, 인자한 미소로 서 계시던 할아버지, 엄하게 그러나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인도하셨던 부모님들의 도움 없이 1세들의 신앙은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신앙교육에서 2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1세의 신앙적 지지(support)와 격려(encouragement)이다. 이것은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공동체에서 가능하게 된다.[220]

미주한인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이민사회의 중추적 역할감당(21.1%),' '이민생활의 외로움(19.9%),' '기도에

[219]http://pwusa.org/zbxe/?mid=source&page=2&document_srl=27195

[220]http://pwusa.org/zbxe/source/26710

열심(14.7%),' '목회자의 리더십(13.9%),' '모이기에 힘씀(9.9%),' '교회개척에 열심(9.7%)' 순으로 조사됐다.[221]

주후 2005 년 크리스챤투데이의 조사에 의하면 미주한인교회의 주일예배 평균 출석성도는'50 명 미만(33.6%),' '51-100 명(30.0%),' '101-200 명(18.3%),' '201-500 명(13.2%),' '501-1000 명'은 2.1%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1001 명 이상'은 0.6%에 그쳤다. 다섯 교회 중에 세 곳(63.6%)이 100 명 이하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후 20001 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출석성도'50 명 미만'이 47.8%에서 33.6% 로 대폭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민교회가 양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222]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 커뮤니케이션의 적용을 통한 예배의 회복은 21 세기를 맞는 한인 이민교회에 부흥으로의 초석이 될 것이다.

---

[221]http://pwusa.org/zbxe/3241

[222]http://pwusa.org/zbxe/3241

IV. 연구과제 수행

1. 연구반 운영과 활동

1) 연구반 구성

본 연구자의 연구반은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 아름다운주님교회 교인으로 구성했다. 연구에 대한 보편성과 미래성을 감안하여 구성을 했다. 아울러 기본적인 연구반 이외에 예배의 적용을 돕는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 찬양팀을 부연구반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이름	나이	직업	교회직분	신앙연륜	비고
연구반	박진우	38	사업	집사	15년	집사/예배 찬양팀
	김선경	36	주부	사모	30년	반주자
	류혜진	21	학생	청년	5년	예배찬양팀
부연구반	김창훈	38	직장	집사	10년	방송실 담당
	박정환	26	직장	청년	26년	예배찬양팀
	신혜화	37	주부	사모	37년	예배찬양팀

표 2. 연구반 명단

2) 연구과제 수행계획

본 연구의 연구반의 운영은 주후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으로 한다. 5월은 준비 단계로 함께 모여 연구반의 정의와 연구 내용, 적용 방법 등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모임을 갖도록 했다. 준비 단계를 거쳐 훈련

단계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연구반 운영에 들어간다. 6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훈련 단계에 해당된다. 이 기간에는 3회에 걸쳐 세미나를 실시한다. 모두 평신도임을 감안하여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예배학에 관련된 내용을 개론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교제 혹은 교안을 활용하기 보다는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여 기본 설명과 질의 응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8월까지의 훈련기간을 마치면 9월부터 12월까지는 교회내 예배 속에 실재 적용단계를 시작한다. 훈련기간의 세미나를 통해 얻은 내용을 어떻게 교회의 각 예배에 적용할 것인가를 실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적용과 그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 보다 나은 목표를 향해 지속적인 반복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아울러 교회의 정규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의 비율과 신앙 연륜에 따라 적용방법을 달리하여 그에 상응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평가단계이다. 수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예배의 변화에 함께 한 신자들의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장단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예배의 틀을 준비한다. 급작스런 변화는 오히려 반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된 변화의 틀을 성탄절 이벤트에 적용함으로 실험적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제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3. 과 같다.

표3.에서 제시된 8개월간의 목회 현장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예배가 독립된 새로운 예배가 아닌 기존의 예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함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특정 교회가 아닌 일반 보편적 교회에서

적용이 가능한 내용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기간		연구 활동	연구 조사 내용	비고
준비	5월	연구 설명회	# 연구반 모임 및 설명회	
훈련	6월	1차 세미나	# 예배란 무엇인가?	
	7월	2차 세미나	# 예배자의 자세	
	8월	3차 세미나	#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적용	9월	예배팀 훈련	# 예배팀 구성 / 찬양팀, 방송팀 # 정기적 예배팀 기도회 및 훈련	
	10월	주중예배적용	# 4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11월	주일예배적용	# 주일 예배 변화와 적용	
평가	12월	예배 평가 및 이벤트	# 예배의 변화에 대한 평가 # 변화된 예배에 대한 설문 조사 # 성탄절 이벤트를 통한 적용	

표 3. 연구과제 수행계획

본 논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신앙 생활을 함으로 신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들의 예배 참여 자세,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연구 조사에 포함시킴으로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뿐 아니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한다.

3) 연구과제의 실제 수행일정

연구반의 실제 운영은 주변 환경과 각 교회의 목회 환경에 따라 변화가 요구된다. 본 논자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름다운주님교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 특히 논자가 담임목회자가 아닌 부목회자로서 목회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담임목회자와 당회의 목회계획에 맞춰 목회를 하며,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에로의 적용점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앞서 제시한 연구반 운영계획을 교회의 목회계획에 맞춰 변경하였으며, 내용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여 수정을 하였다. 수정된 진행 내용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기간		연구 활동	연구 조사 내용	비고
준비	6월	연구 설명회	# 연구반 선정 # 모임 및 설명회	
훈련	7월	1차 세미나	# 연구반을 대상으로 실시 # 예배학 개론 # 예배 찬양팀의 역할과 책임	
	8월	2차 세미나	#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적용 # 예배자의 자세	
적용	9월	예배팀 훈련	# 기존 예배팀 활용 및 보강 # 방송실(음향/영상) 교육 # 정기 연습 및 기도회 # 금요 특별 집회	
	10월	교회의 모든 예배에 적용	# 주일예배의 변화 # 주중예배의 변화 # 예배팀의 변화 # 예배 축제	
	11월			
평가	12월	예배 평가 및 이벤트	# 예배의 변화에 대한 평가 # 변화된 예배에 대한 설문 조사	

표 4. 목회일정에 따른 연구과제 일정 변경안.

본 논자가 연구반을 통해 목회현장에 실제 적용한 내용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담임목회자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본인이 교회 내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찬양팀과 청년부를 중심으로 활용한다는 범위에서 허락을 얻었다. 기존계획은 연구반의 훈련과 이를 적용하는 범위였다. 1차 세미나를 마친 후 함께 참여한 연구반이 전체 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그리고 담임목회자가 국외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인해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통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주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병행한 주중예배 찬양팀의 지속적인 훈련이 찬양팀의 성장을 가져왔다.

찬양팀의 성장은 곧 교회 전체 예배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회의 주중예배 찬양팀이 인도하는 집회에 대한 건의가 당회를 통해 있었다. 9 월 집회를 통해 예배의 변화에 대한 출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교회내에서 주일예배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에 부합하여 교회 예배팀이 다시 정비가 되고, 주일예배와 주중예배의 형태와 내용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2 월 5 일 예배축제로 이어졌으며, 교회의 전체 분위기에 변화를 가져왔다.

2. 목회 유능성 개발

예배 커뮤니케이션은 목회현장에서도 요구된다. 그것은 목회현장과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분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은 목회의 리더십, 설교 그리고 교회행정에서도 활용되고 극대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간접적으로 예배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 이야기 설교를 통한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

설교는 교회의 대표적인 의식인 예배의식의 핵심이다. 한국교회 전통 속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무겁다. 앞서 언급을 했듯이 아직 많은 한인이민교회 예배의 중심에는 설교가 위치하고 있다. 심지어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의 실력을 가늠하기도 한다. 목회자는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설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필수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를 설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 설교자의 카리스마와 자기과시적 언변을 통해 예배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설교의 방법적인 면에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설교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교의 메세지는 청중들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해 설교자는 청중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진리의 메세지를 전달해 줌으로써 격려, 치유, 헌신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설교를 통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예배 전체의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예배커뮤니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설교 유형을 정의내릴 수는 없다. 설교는 다양한 유형이 연구되어 졌으나 최종적으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설교자의 사상이나 어법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현존하는 다양한 설교 유형 가운데 ‘이야기 설교’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야기 설교는 귀납적 형태를 근간으로 전개가 된다. 그리고 다른 설교 유형에 비해 회중으로 하여금 성경 본문과의 연결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을 했듯이 ‘이야기 설교’만이 효과적인 예배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이야기 설교의 적용을 위해 2010 년 4 월부터 약 3 개월 간 ‘이야기 설교’에 관련된 학문적인 연구와 본문 연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스토리 진행’ 방식과 ‘스토리 보류’ 방식을 혼합하여 본 연구자에 맞는 변화된 유형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7 월 이후 여름 기간 동안 청년부 예배의 설교를 통해 이에 대한 실습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러한 진행이 8 월 장년 장년 예배를 통한 3 차 세미나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었다.

본 연구자는 교회 내 사역의 특성상 장년 예배의 설교에 대한 적용과 훈련의 기회를 자주 얻지 못했다. 그러나 효과적인 예배커뮤니케이션이 교회내 특정 그룹이 아닌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교의 완성이라 할 수는 없으나 완성에 가까운 설교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하나의 설교 유형만을 고집하지 않고 성경 본문에 따른 다양한 설교 유형 적용을 통해 설교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예배에 필요한 설교의 적용점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논문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효과적인 예배’ 속에서 설교의 위치를 분명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소통의 리더십을 통한 동기부여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의 부재라고 말한다. 사회 속에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역시 동일하다. 목회자 역시 교회공동체의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 해야 한다. 리더는 추종자가 있을 때 리더가 된다. 추종자가 없는 리더는 리더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추종을 받을 만한 실력과 인격을 겸비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 교회의 각 기관과 사역자들 사이에 유기적 관계는 더욱 활성화되고 교회의 구성원들은 목회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도전을 받을 것이다. 이는 교인들로 하여금 목회와 선교가 교회 혹은 목회자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회의 각 구성원이 동일한 필요에 의한 목적을 가지고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목회의 핵심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다.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이기에 목회자는 무엇보다 먼저 늘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훈련해야 한다.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 존재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위해 목회자 역시 더욱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갈 때 보다 분명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예배에 대한 길을 교회공동체에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준비한 공동체 리더 관련 연구가 도움이 되었다. 이는 '한국 리더십센터'[223]의 온라인 진단 시스템 및 교육자료 연구 및 'Franklin Covey Co.'[224]의 온라인 프로그램의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이를 연구과제 수행에 적용을 한 결과 연구반원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반원 중 류혜진은 논자와 함께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추구해야 할 목적에 대해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연구반원 김선경은 예배팀의 훈련과 교육, 훈련의 전문성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결국 리더는 리더십을 통해 목적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며, 목표로 하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가능케 해야 함을 감안 할 때 이를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먼저 필요하다.

3) 이민교회의 인적 계발 및 관리를 위한 교회 행정

조직 속에서 늘 고민되어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 사회 속 모든 조직에서 고민하는 문제이며, 교회도 예외 일 수 없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룸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함께 이루어 가게 된다. 점차 대형화되어가는 현대교회의

[223]http://www.eklc.co.kr/

[224]http://www.franklincovey.com/tc/solutions/the-7-habits-solutions

특성에 맞게 목회자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목회가 교회공동체 구성원을 돌보는 일이기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하나님과의 이루는 예배가 추구하 듯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 방관자 없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그대로 예배에서 목회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한정된 인적 자원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이민교회는 이에 대한 계발과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교회는 소수의 직분자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닌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갈 수 있는 유기적인 조직체를 필요로 한다. 이에 관해 본 연구에 참여한 박진우, 김창훈은 셀그룹 등 교회의 다른 부분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사역에 대한 시간적, 물리적 환경을 잘 조절 할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말하였다. 이는 효과적인 목회사역에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한정된 인력에 대한 적절한 인적 관리와 교육은 장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를 위한 목회자의 관리 능력이 요구되어진다. 하지만 본 연구자의 교회내 사역 편성상 이에 대한 실천 연구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앞으로 전개될 교회행정의 환경에 따른 제안을 하고자 한다.

결국 목회자는 효과적인 목회 운영을 위해 행정적인 부분과 인적 계발과 관리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보다는 미래를 대비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 발전 가능성을 향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교회의 목회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취사선택이 있어야 한다. 보다

효과적인 목회 관리와 정보 관리를 위해 '목회/교회 전산화'를 실행 할 것이다. 이는 '카야 시스템,'[225] '스데반 정보'[226] 등 전문교회 전산화 프로그램을 적용 평가 후 지속적인 개선화 작업을 통해 이루어 갈 것이다. 이는 단기간 보다는 장기간의 시간을 걸쳐 이루어 질 것이며, 목표로 하는 '교회내 전문 인력 교육/관리,' '정보 분류/관리' 등 목회 전반에 걸쳐 추구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언급한 리더십, 설교, 교회행정 등은 각각 독립되어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것이 각각의 자리에서 독립된 역할들을 상호협력 속에서 이루어 갈 때 최종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능해 진다.

3. 연구과제 수행 내용

1) 1 차 세미나

본 연구의 연구반은 교회내 논자가 담당하고 있는 찬양팀과 청년부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다. 연구반의 방향이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고, 예배 변화의 주체임을 감안해 주일예배, 주중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찬양팀과 방송실 담당자 가운데 선정을 했다. 그리고 매주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 오후 6:30에 교회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

[225]http://www.caya.kr/

[226]http://www.dimode.co.kr/

주후 2010 년 6 월 5 일 교회에서 연구반의 첫 모임을 통해 교회내 예배의 변화를 위해 담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1 차 세미나에서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의견들을 게재하면서, 모두가 동일하지 않은 예배모형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일하지 않은 예배모형은 건강한 교회를 세움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루어질 모임들을 통해 성경을 바탕으로 예배의 모형과 예배의식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각자가 맡아 사역을 하게 될 분야를 결정을 하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함으로 아름다운주님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할 것을 다짐했다.

2) 2 차 세미나

연구반을 대상으로 6월 19일 토요일 오후6:30에 약 1시간에 걸쳐 2차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내용은 예배학에 관련된 것이다. 먼저 예배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기 위함임을 인지한다. 이제까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혹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했는지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참석한 이들은 이제까지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보다는 예배를 참석하여, 설교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출석 당일 설교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 '예배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돌파구를 찾게 될 경우에는 반대로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참석한 이들의 공통된 견해는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노력 보다는 삶의 돌파구를 예배에서 찾기에 바빴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회복되었을 때, 세상에서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참석한 이들 역시 토론을 진행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보다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강했음을 인정했다. 가장 먼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이다.

이어서 진행된 두번째 주제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는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앞선 주제를 통해 참석자들은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체가 없는 모임은 모임으로서의 목적을 이미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험하면 되는 것인가?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예배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들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경배이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구체적으로 행한 일이 바로 예수의 탄생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다. 이로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결국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의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된 예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예배는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역과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

예배자가 예배 속에서 경험해야 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곧 천국의 소망을 말한다. 인간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예배를 통해 예배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경험하며,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배 속에서 예배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은 의식과 집례자를 통해서이다. 하지만 의식과 집례자를 통해서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령이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가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실재(spiritual reality)'로서 예배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예배자는 예배 속에서 일하시는 영적인 실재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역과 계획, 예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 집례자는 이러한 내용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고, 예배자는 예배 속에서 위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차 세미나는 단순한 지식 전달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참석한 연구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식의 전달 보다는 기존 예배자의 자세를 점검하면서, 스스로의 예배 모습을 되돌아 보기 위해 함께 토론하고, 예배의 변화를 위해서는 예배자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3) 3 차 세미나

3차 세미나는 주후 2010년 8월 8일 주일예배를 통해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물론 세미나가 아닌 주일 설교지만 그 내용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 언급을 했다. 성경 본문은 미가 6:6-8이다.

>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 6:6-8)"

본문을 통해 논자는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첫째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다.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이 수반될 때 예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더 근접한 예배를 할 수 있다. 두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예배는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예배가 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경험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3 차 세미나의 목표는 앞선 1, 2 차 세미나와 다르다. 1, 2 차에서는 예배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사람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예배 변화에 대한 틀을

제시하고, 변화의 방향에 대한 과정과 목표를 제시함으로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3 차 세미나는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 성경을 통해 제시함으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형태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변화된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했다.

4) 예배에로의 적용

(1) 비정규예배

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예배는 년 2 회 봄, 가을에 개최되는 '치유 수양회'와 비정규적으로 개최되는 'Worship Concert(예배 축제)'가 있다. 비정규예배에 대한 변화된 예배의 적용은 주일예배에로의 적용을 위한 단계로 볼 수 있다. 본 교회의 치유 수양회는 봄, 가을 연 2 회 실시를 하며, 일요일 오후 1:30 에 시작하여 저녁 10:00 에 마친다. 4 번의 세미나와 소그룹 모임과 식사 및 교제로 구성되어 있다.

세미나를 참여한 성도들은 신앙을 재점검하고, 구원과 교회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 재정립을 하게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된다. 세미나의 내용은 본 논문의 주제가 아니기에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형태적인 면에서 기존의 세미나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다. 세미나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찬양이 아닌 세미나의 주제와 연결이 되는 찬양을 강의에 앞서 하게 된다. 세미나 이후에는 동일한 주제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제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이어지는 소그룹모임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간의 교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내용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설교에 해당되는 강의를 하나의 주제로 묶을 뿐 아니라 마치 전체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치유수양회를 통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깨닫도록 도움을 준다.

연 2 회 실시되는 치유수양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질 주일예배에 적응을 해 나가게 된다. 주일예배의 변화 이전에 생소한 분위기를 경험하도록 하며, 주일예배형태의 변화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양회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다.

(2) 주중예배

아름다운주님교회의 주중예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30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형태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한인이민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여타 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큰 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30 – 9:00 찬양
9:00 – 9:50 설교
9:50 – 10:00 기도 및 축도

약 30분간 찬양을 한 후 설교가 45분 가량의 분량을 차지를 한다. 수요예배가 없는 상황에서 주일예배와 금요예배가 교회의 정기예배임을 감안 할 때 두 예배 모두 설교중심의 예배이다. 30분간의 찬양의 내용을 살펴 보면

복음성가[227]로 분류되는 곡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내용을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본래의 목적보다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성도간의 교제가 주된 내용이다. 또한 찬양은 설교를 위한 준비로서의 인식이 있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는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필요에 따라 뒤바뀔 때 예배는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주중예배에 있어서도 주체는 하나님이다. 예배자의 믿음의 고백이 찬양을 통해 있기전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인정 할 때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따라오게 된다.

아울러 주중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구성이다. 본 교회의 경우 주중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을 주일예배 대비 약50%의 인원이 참석을 한다. 구성을 살펴보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삶의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한다. 결국 교회가 추구하는 제시된 방향을 향하여 함께 하는 교회의 핵심 구성원들이다. 주일예배의 변화를 위한 인식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식의 변화가 선결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예배에 앞서 먼저 주중예배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앞서 언급한 변화되기 전의 주중예배와 변화 이후의 형태적인 면을 비교하면 표5. 와 같다.

---

[227]CCM 이라는 음악 장르가 세분화되면서 내용에 따라 다양한 장르가 형성이 되었다. 특히 찬송가, 복음송, 복음성가, 경배송 등 다양한 장르로 구분된다.

변경 전	변경 후
8:30-9:00 찬양 9:00-9:50 설교 9:50-10:00 기도 및 축도	8:30-9:05 찬양 9:05-9:35 설교 9:35-9:55 찬양 및 기도 9:55-10:05 축도 및 교제

표 5. 주중예배의 형태적 변화의 변경 전후 비교

이러한 형태적 변화가 내용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용의 변화에 대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형태의 변화가 함께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내용적인 면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찬양의 변화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경 전	변경 후
구주 예수 의지함이	거리마다 기쁨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 주니의 기쁨되기 원하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나의 안에 거하라
기뻐하며 왕께	날 채워주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주 같은 분 없네
나 기뻐하리	내가 주인 삼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마음이 상한 자를
내 영이	모든 민족에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귀들과 싸울지라	보혈 세상의 모든
마지막 날에	보혈을 지나
먹 보다 더 더 검은	십자가 그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예수 우리 왕이여
성령받으라	오직 주님만
승리는 내 것일세	온 맘 다해
아주 먼 옛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침 안개 눈 앞 가리듯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들이
약한 나로 강하게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일어나라 주의 백성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날은 이날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품에 품으소서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주가 모이신 생명의 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께 가까이

표 6. 주중예배 찬양의 내용적 변화의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언뜻 보기에 신곡과 구곡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변화의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다. 변경 전의 곡들의 상당수가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성도간의 교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변경 후의 곡들은 이전 보다 더 구체적인 신앙 고백과 성도간의 교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예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설교 전의 찬양 뿐 아니라 설교 후의 찬양과 기도 시간을 별도로 배정함으로 설교의 내용을 근거로 스스로 마음의 결단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가 주중예배의 주 구성원이 되는 교회의 제직들로부터 시작이 되게함으로 변화의 초석을 다지도록 했다.

(3) 주일예배

주중예배의 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곧 주일예배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일예배에 변화를 주는 것은 결단이 요구된다. 주중예배를 통해 교회의 주구성원들의 예배의식에 변화가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전체교인들에게 영향을 주기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원치 않는 이민교회의 특성상 예배형태의 변화에는 교회와 목회자의 결단이 요구된다.

아름다운주님교회는 위와 같은 이민교회의 특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예배 변화의 필요성을 통감하였다. 이에 변화된 주중예배가 완전하게 정착이 되지 않았음에도 주일예배의 변화를 결정하여 실행에 옮겼다. 먼저 주일예배의 물리적 시간의 변화 내용이다.

변경 전	변경 후
10:50-11:00 찬양 11:00-11:25 묵도/찬양/대표기도 성가대 찬양/광고/봉헌 11:25-12:10 설교/기도/축도	10:45-11:10 찬양 / 통성기도 11:10-11:25 대표기도/성가대찬양 광고/봉헌 11:25-12:00 설교 12:00-12:10 찬양/축도

표 7. 주일예배의 시간 변경 전후 비교

위에서 드러난 것처럼 예배전 찬양이 10 분에서 25 분으로 늘었다. 그리고 묵도가 제외되고, 찬양 후 통성기도를 통해 대표기도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다. 설교 또한 변경 전의 약 40 분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던 것이 35 분으로 줄어들고 설교 후 찬양이 추가 되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아름다운주님교회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설교가 시간적으로 비슷한 분량을 예배 가운데 차지하게 되었다. 가능한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도록 배려를 하였다. 또한 예배의 변경함과 동시에 한인이민교회에서는 아직 사용의 폭이 넓지 않은 새찬송가와 개역개정판 성경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민교회이지만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의 교단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름다운주님교회 주일예배의 내용적 변화를 살펴보면 더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찬양의 변화이다. 예배찬양에 있어 아름다운주님교회는 본질을 추구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 고백과 예배자 개인의 정적인 부분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과 예배, 헌신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경 전	변경 후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기뻐하며 경배하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고개들어 내가 주인 삼은 당신은 영광의 왕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의 보혈은 내가 매일 기쁘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십자가로 가까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에서 자유를 얻게함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하나님의 나팔소리	때가 차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으로 송축하리 완전하신 나의 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임하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에게 향하신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주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와 엎드려 주님과 함께 하는 주를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을 드리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표 8. 주일예배 찬양의 내용적 변화의 변경 전후 비교

위에 드러난 것처럼 가사의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다. 변화된 찬양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의 짧고 단순한 가사를 가진 곡을 우선 선정을 하였다. 그리고 빠른 곡 보다는 느린 곡을 우선하였다. 이유는 가사를 외우는 것이 더 찬양에 집중할 수 있으며, 느린 곡이 기존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을 더 잘 자극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찬양을 인도 하던 것에서 주중예배의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러한 내용은 새로운 예배찬양 형태로 미국교회 내에 퍼지고 있는 '소킹 예배(Soaking Worship)'[228]의 영향을 받았다. 찬양과 기도를 구분하기

[228]'Soarking Worship'을 추구하는 이들은 'Soaking Worship'이 새로운 예배형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는 기존의 예배와 찬양을 보다 새롭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oaking.net/soaking.php 을 참조.

보다 찬양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후의 순서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그 내용의 변화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설교의 물리적 시간이 짧아진 만큼 설교가 설교 후 찬양과 연결이 되었다. 과거 설교중심의 예배에서는 설교 마지막에 설교자에 의해 예배자들로 하여금 헌신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던 것이, 찬양과 기도로 변경이 되었다. 예배자들에게는 설교자로부터 듣는 헌신의 도전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이를 결단하게 하였다.

주일 예배 순서의 변화를 상세하게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다.

변경 전	변경 후
경배와 찬양 / 찬송가 1 곡	예배 찬양 / 경배와 찬양* 6 곡
예배의 부름 / 성가대	기도 / 기도자
신앙의 고백 / 사도신경	소식과 환영 / 영상
예배의 찬양 / 찬송가 1 곡	찬양과 봉헌 / 봉헌관련 찬양
중보의 기도 / 기도자	봉헌기도 / 집례자
생명의 말씀 / 설교자	말씀선포 / 설교자
봉헌과 기도 / 다함께	찬양 / 2 곡
환영과 소식 / 집례자	축도 / 집례자
결단의 찬양 / 찬송가 1 곡	
치유와 소원 / 집례자	
축도 / 집례자	

표 9. 주일 예배순서의 변경 전후 비교
* 앞서 언급한 변경된 찬양 목록 가운데 선정함.

변경 전후를 비교해 보면 변경 전의 '신앙의 고백/사도신경'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설교 이후에 위치해 있던 '봉헌'과 '교회소식'이 설교 전으로 이동을 했으며, 내용이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설교 후의 '치유와 소원' 역시 삭제되었다.

이렇게 아름다운주님교회 예배의 변화는 집례자와 설교자 중심에서 회중이 직접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예배 속에서 기회를 제공해 주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주님교회는 교회의 모든 예배 속에서 예배자가 하나님과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초석을 제공하였다. 이후에는 이제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배자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교회는 지속적으로 도와야 한다.

5) 평가

본 연구의 평가는 주후 2010 년 12 월 5 일 프로젝트를 마친 후 설문조사 형식을 통해 평가했음을 밝힌다. 평가의 대상은 전체 교인이 아닌 정기적으로 주일예배와 주중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신앙 연륜이 10 년 이상된 자들로 예배의 변화에 대해 장단점을 제시할 수 있는 이들로 국한했다.

(1) 연구반원의 개인의 변화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반원은 평균 20 년 이상의 신앙 연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이민교회의 한국적 형식의 예배에 익숙하면서도, 변화에 민감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각 분야에서 봉사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모두 이번 연구과제 수행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여 함께 함으로 교회의 변화 뿐 아니라 개인신앙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들은 다음에 언급한 설문조사에도 참여했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해 보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변화의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 특히 개인신앙의 발전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이 이전에 비해 하나님과 밀접해 졌음을 알 수 있다.

(2) 설문조사 분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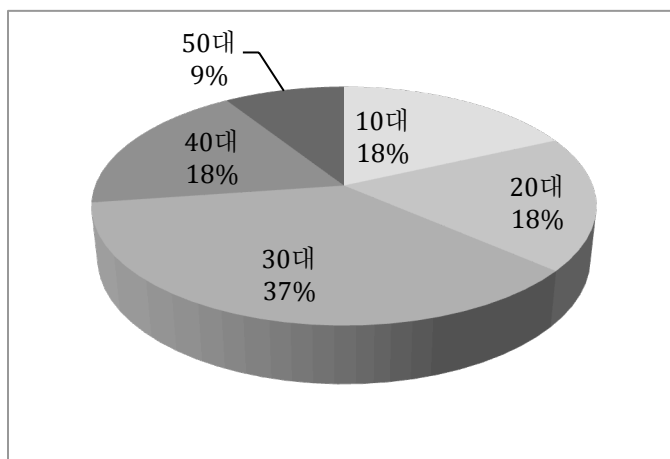
그림 1. 설문조사 참가자 연령 분포

좌측의 그래프는 참가자들의 연령분포를 나타낸다. 내용을 살펴보면 20 대에서 40 대가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교회는 항상 현세대를 기준으로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교회의 구성원들 중 20 대에서 40 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의 적용이 곧 교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은 차기 교회의 영적지도자될 대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예배의식 변화와 재정립은 교회가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위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 과제수행에서는 3 번의 세미나를 개최했음을 밝혔다. 1, 2 차는 연구반이 대상이었으며, 3 차는 설교의 형식을 통해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3 차 세미나는 1, 2 차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주일예배에만 참석한 이들이며, 1, 2 차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3 차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

아래 그래프는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개인의 예배관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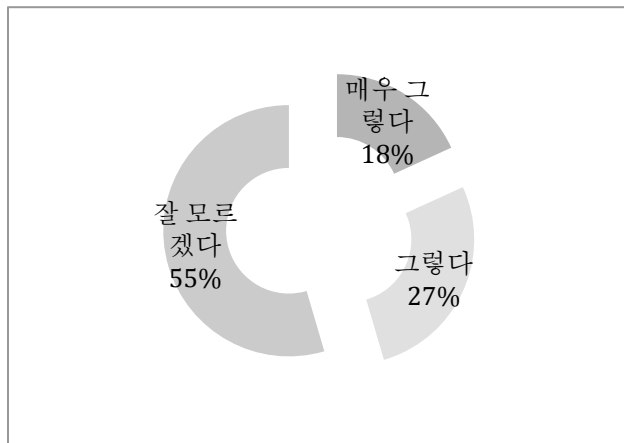
그림 2. 세미나 후 본인의 예배관에 변화가 있었는가?

연구반의 경우 3 번의 세미나를, 전체 교인은 1 번의 세미나를 통해 성경적 예배관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프의 내용을 살펴 보면 세미나 이후 예배관에 변화가 생긴 교인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예배관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예배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룬다. 세미나 이전에는 예배에 참석해 은혜를 받기만을 원했고, 설교를 통해 마음에 은혜가 안되고, 흡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설교자를 향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미나 이후 첫째, 예배는 설교만이 아닌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포함되어 있으며, 둘째, 예배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함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가 곧 예배형태 보다는 예배의 내용에 대한 예배자의 의식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의식 변화에 대한 질문과 함께 예배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의 82%가 예배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다. 역으로

그 동안 신자들을 향해 예배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세미나 등의 예배 관련 교육 통해 스스로 예배에 임하는 태도의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교회의 예배 관련 교육은 예배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간과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예배형태의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면 예배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기전 예배자의 의식의 변화가 선결되야 한다. 예배 관련 교육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하며, 교회 구성원 역시 관련 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논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예배팀의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을 했다. 신자들은 잘 훈련된 예배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다. 예배팀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82%,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전체의 91%에 해당한다. 예배팀에 속해 사역을 하는 이들 뿐 아니라 예배팀에 속해 있지 않은 이들도 예배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었다. 예배 속에서 훈련된 예배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예배에는 다양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음향, 방송, 영상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기들의 운용이 예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기들이 예배 속에서 적절히 운용이 될 때 비로소 예배에 참여한 이들의 만족감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팀의 필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자들 중에는 예배팀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인해 예배를 방해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예배팀이 아니더라도 예배팀의 중요성을 경험을 통해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배팀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예배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에 대한 물음에 73%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예배팀은 문화적인 변화의 요소에 민감하다. 이는 찬양, 방송, 영상 등 당시대의 문화에 민감한 요소들이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회적인 교육으로 예배팀의 교육이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예배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계속해서 발전 변화하는 문화적 요소가 예배 속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배팀 교육과 훈련은 실재 예배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더욱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유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에게 대해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보다 효과적인 사역의 준비를 원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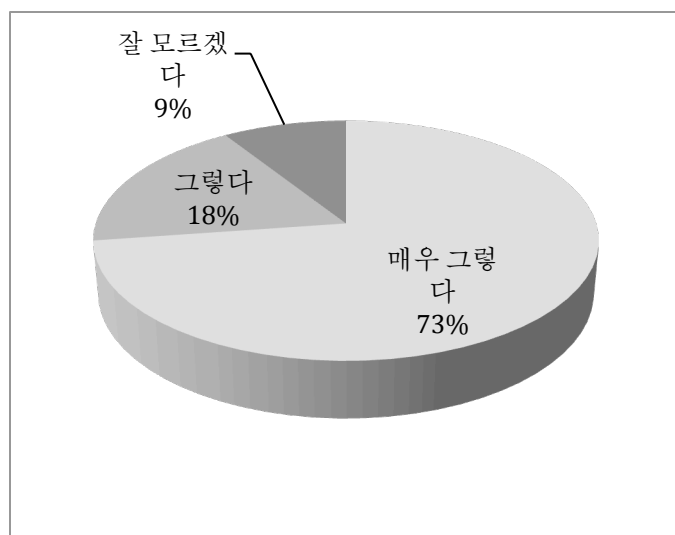
그림 3. 예배의 변화에 적응이 쉬웠는가?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예배팀을 통해 변화된 주일예배에 참여한 신자들의 반응에 대해 보면 좌측의 그래프에서 알수 있듯이 한인이민교회의 특성과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인이민교회의 특성상 예배형태와 내용에 변화는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이민교회들이 한국교회의 7,80 대 예배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결정으로 변화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변화된 예배에 적응하는 정도에 대해 질문을 했다.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변화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전체의 73%가 적응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적응이 쉬웠다는 응답이 전체 91%에 이르렀다. 물론 주일예배에 변화를 주기 위해 주중예배를 통해 장기간 적응력을 키운 결과이기도 하지만 의외의 결과였다. 먼저 변화에 둔감한 5,60 대가 다수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20~40 대를 대상으로 질문에서 도출된 결과이기에 교회의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변화를 두려워 하기 보다는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논자가 본 논문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기존 형태의 틀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예배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변화된 형식 속에는 기존의 형태 중 그대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었다. 대표기도, 성가대의 찬양, 봉헌, 설교, 축도 등은 변화의 이전과 다름없이 동일했다. 예배형태의 변화 이후 이러한 동일한 순서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는 응답이 위 그래프에 나타난 것 처럼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이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예배는 예배의 형태 뿐 아니라 예배자의 의식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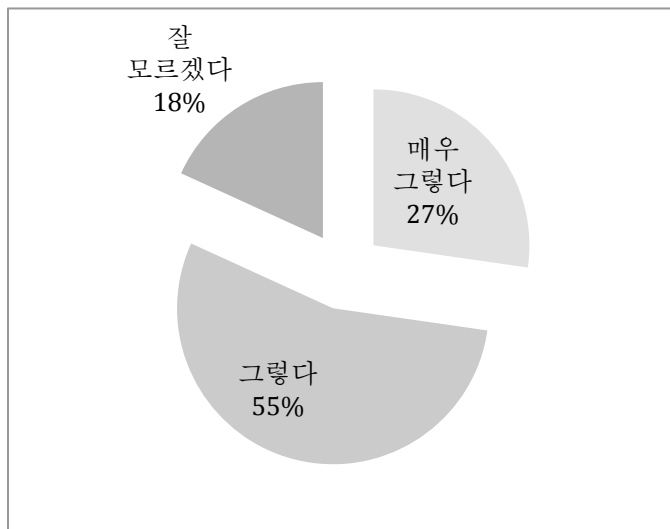
그림 4. 예배형태의 변화 이후 순서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었는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한다. 결국 예배를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배의 처음 시작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예배의 시작이다.

예배의 집례자 혹은 예배팀이 예배를 잘 준비한다 해도 예배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변화된 예배형태는 이런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답변에 응한 모든 이들이 이전보다 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변화된 예배가 예배자들을 향해 안내의 말이나 글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일부 교회에서 예배갱신을 말하며 사회자가 없는 예배를 진행한다. 본 연구가 진행된 교회의 예배도 예배 속에 사회자 혹은 순서 안내의 말이 없다. 그러나 사회자가 없는 것이 곧 예배자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인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예배가 추구하는 내용 중에는 예배의 삶의 연장이 포함된다. 예배자로 하여금 주일예배의 참여가 예배의 전부가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변화된 예배가 예배자의 심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었음을 앞선 질문에서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로인해 주중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이 더 생겼다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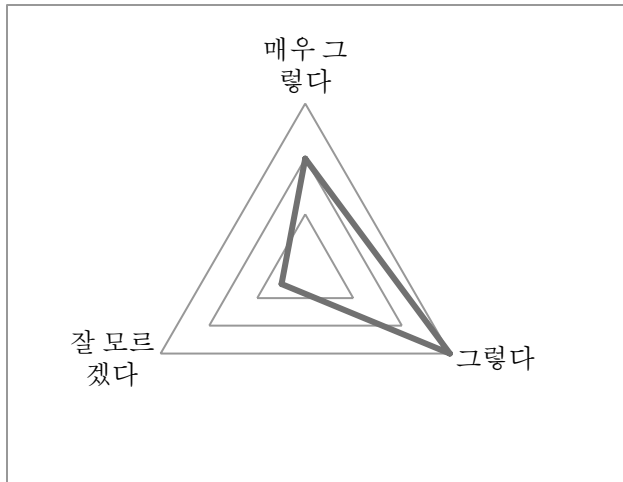
그림 5. 변화된 예배가 본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는가?

좌측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예배는 단순히 주일예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예배자의 삶 전체에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을 놓는 것이다. 예배자는 주일예배를 시작으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예배의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는 찬양이다. 90 년대 이후 교계를 강타한 경배와 찬양과 같은 집회 스타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찬양의 내용이다.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찬양에서의 변화는 곡의 선정의 변화다. 찬송가인가, 아닌가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예배자로 하여금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인가가 바로 기준이다. 대표기도에 앞서 약 25 분간 함께 부르는 찬양은 예배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대하심을 경배하며, 한 없는 사랑에 감격하게 만든다. 예배형태의 변화에 상관없이 찬양의 변화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배 속에서 이전 보다 더 하나님을 경험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준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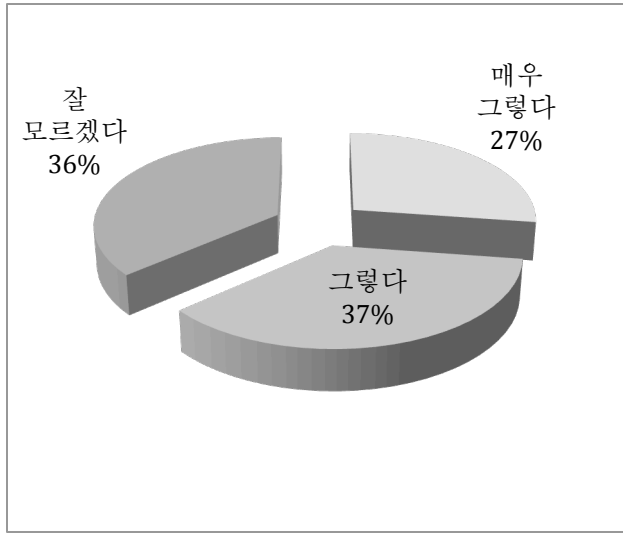
그림 6. 예배의 변화 후 전도의 열정이 이전보다 더 일어났는가?

주후 2000 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성장은 정체기에 들어섰다. 교회들마다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 그로 인해 성도들의 수평이동도 증가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예배는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을 예배자들로 하여금 갖게 한다. 위의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변화된 예배를 통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겼다는 응답이 64%에 달했다. 이러한 응답이 곧 전도와 교회성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전에 비해 전도의 마음이 더 생겼다는 것이다. 목회자는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전도훈련과 전도실천으로 예배자들을 이끌어 교회 성장의 바탕을 다질 수 있다. 자신의 삶에 바쁜 이민사회 속에서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교회 내에는 매우 다양한 집회와 모임들이 존재한다. 매주 이루어지는 정규적인 예배 뿐 아니라 비정규적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 집회는 추구하고하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신자들간의 친교가 목적이 아닌 예배로 이루어지는 집회라면, 해당 집회를 통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일예배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가면서, 예배자들은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예배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모든 이들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배의 주제가 헌신, 선교, 사회봉사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다 해도, 그 내용을 통해서는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룬 예배자들로 하여금 헌신과 선교 혹은 사회봉사로 그들의 믿음이 구체화되도록 해야 한다.

(3) 연구과제 수행의 한계

이제까지 설문조사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예배’는 예배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험케 하며, 예배의 삶으로의 연장과 전도를 통한 교회성장, 그리고 개인 신앙성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와함께 적절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고, 팀이 구성되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주일예배의 변화는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포하더라도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과감한 결단을 통해 실천에 옮겨야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먼저는 연구자의 위치다. 본 연구자는 연구가 진행된 교회의 부목회자로서 예배와 찬양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다. 교회 예배의 형태 변화의 결정에 한계가 있어 보다 다양한 적용을 하지 못했다.

두번째는 후속 조치이다. 앞서 도출된 결과 중 후속 조치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 바로 전 훈련과 이를 통한 교회성장, 교회내 기타모임에로의 다양한 적용이다. 본 논자가 교회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적용점을 찾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4. 연구과제 수행 이후의 변화

1) 개인신앙의 변화

예배가 단순한 의식의 한 종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때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보다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룸이 지속되어질 때 이는 다시 예배자의 삶으로 연장이 되어진다. 이렇게 예배자의 예배와 생활의 관계가 밀접해 지면서, 현대 산업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일과 종교생활의 분화 현상을 발견할 수 없다. 즉 일반적인 생활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 서로 별개의 것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이다. 예배와 삶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일상이 거룩한 예배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반원들의 개인 변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기독교의 예배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자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예배자로서의 인간의 응답이기에 인간은 예배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야 한다. 예배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는 것이 곧 예배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이들의 변화는 세미나를 통한 예배의식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밝힌 설문조사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세미나는 이들의 예배관을 새롭게 했다. 세미나를 통해 예배를 통해 왜 예배자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예배자로 참여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교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시작을 본 연구에서는 찬양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기존의 예배에서는 예배의식 가운데 설교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후에는 예배의 첫 찬양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잠언 8:17 처럼 이들은 첫 찬양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개인 신앙의 변화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의 초점이 예배의 한 부분인 설교만이 아닌 예배의 처음부터 집중이 되어 예배를 함으로 인해, 예배를 통해 얻는 감흥이 이전보다 더 하다고 이들은 말한다.

아울러 이러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경험은 예배 내에서 기도, 설교, 헌금 등 다른 예배 요소에서도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경험은 예배 외적인 요소에까지 영향을 준다. 앞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성경공부,

전도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미치는 영역을 확대해 간다. 이러한 확대는 교회 내에서의 신앙이 교회 밖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신앙성장은 급격히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개인 신앙 성장으로 단순 연결을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배 생활이 회복되는 것은 지속적인 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신앙의 변화를 통해 본 연구가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은 교회 뿐 아니라 개인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

본 연구를 통해 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을 자료를 통해 증명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의 제한으로 불가능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몇가지 결과를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다.

먼저는 예배자들의 개인적인 변화이다. 이는 앞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예배에 참석한 이들의 마음 속에 전도하고자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1, 2 회의 예배 참석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얻을 수는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예배가 단회적인 특별 행사 혹은 집회여서는 안된다. 정기적인 예배에 이를 적용함으로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야 한다. 바로 앞서 언급한 개인 신앙의 변화가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 모두로 확산될어 질 때, 이는 개인 신앙의 변화에서 교회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교회 성장으로 이어진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영혼구원 즉, 전도에 이전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전도를 통한 교인 증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두번째는 예배의 변화이다. 수평이동이 많은 이민교회의 특성상 많은 이들이 진부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이에 새로운 형태의 예배와 그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감흥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의식의 단순화로 처음 교회를 찾은 이들에게도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회의 양적성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유입되는 근래 이민자들은 상당수가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다. 의식보다는 의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현대 한국교회의 예배에 익숙해 있는 이들은 의식에 얽매여 있는 기존 이민교회의 예배 분위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실제로 본 교회 20~40 대의 유학생을 포함한 신규 이민자들은 이러한 언급을 하고, 이 중 몇몇은 본인이 선호하는 교회로 이동을 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성장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예배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적절한 예배의식의 변경과 내용의 변화는 현대 그리스도인 특히 이민사회에 속해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예배가 또 다른 교회성장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가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한다. 이 축제성은 분위기만을 축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예배의 내용이 부활의 영광을 축하하는 축제가 되야 한다. 그리고 예전의 배제가 아닌 예배 속에 예전이 녹아져 있어야 한다. 예전에 따라 예배가 진행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예전이 녹아져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와의 조화가 이루어진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예배의 한국적 토착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예배는 예배인도자가 아닌 설교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예배에 회중의 적극적인 예배 참여는 쉽지 않기에, 예배의 기획에서부터 순서 진행, 예배 이후의 삶에 이르기까지 참여의 문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교단들이 배타적 관계에서 벗어나 교회의 가시적 하나됨을 위해 공동의 예배모범을 준비할 필요도 있다.

한국교회 신자들의 단점으로는 예배와 삶의 이중적 구조를 들 수 있다. 예배는 예배대로, 삶은 삶대로 각각 서로 다른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예배를 통해 각자의 삶으로 파송을 받아 세상의 삶에 연결이 되는 확장된 예배개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예배와 삶과 신학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결국 다양성을 기뻐하신다. 또한 인간의

모든 문화가 그 자신의 언어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한다. 각각의 문화는 기독교 예배의 정체성에 맞도록 그 나름의 공헌을 할 것이다. 예배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투박하게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있어서는 통일성을 나타내도록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되어야 한다.[229]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지배를 받는 현대사회 속에서 다양성을 거부하면 도태된다.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일체성을 추구해야 한다.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가 삶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이 되기 전에 예배가 무엇이며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예배에 어떻게 나아가느냐를 알아야 한다.[230] 많은 예배학자들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있어고, 현재에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가 연구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목회현장 속에서 활용이 되야 한다. 목회현장에서 임상연구가 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올 때 각 개교회에 맞는 효과적 예배 커뮤니케이션이 생성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예배는 예배의 특성상 예배인도자 혹은 찬양인도자, 찬양팀, 예배사역팀(방송, 음향), 설교자에 따라 좌우된다. 이 가운데 찬양팀과 예배사역팀은 훈련을 통해, 설교자는 기존 목회자를 통해 이루지지만 예배인도자 혹은 찬양인도자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다. 기존 교회는 예배인도자에 대해 노래, 음색 등 음악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의

[229]James F. White, *예배의 역사*, 254.

[230]Bill Payne, "찬양과 예배, 빛과 소금," 1988 년 9 월호 (서울: 두란노서원), 60.

시작을 예배 인도자와 찬양팀이 담당을 하므로, 이들은 분명한 예배의 목적과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결과를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훈련 없이는 본 연구의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 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새로운 형태로의 예배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획성 있는 준비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함[231]을 인지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사람을 준비시켜야 한다.

1. 한인이민교회를 향한 제언

한국교회의 예배는 열정적이고, 성서 중심적이다. 또한 초창기 선교사의 대부분이 청교도 전통에 따랐던 것을 기억하면 한국교회는 성서 중심으로 회심을 강조한 단순한 예배가 중심이었다.[232] 초기부터 예전이 강조되지는 않았다. 이후 시대에 따른 변화를 거듭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성장을 거듭하던 한국교회는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많은 교회들이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교회마다 '예배갱신'을 외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한국교회는 확연하게 양적 성장의 부흥원리에 사로잡혀 있다. 이로인해 '예배갱신'이 진정한 예배갱신이

[231]정삼지, "사람이 중요하다," 기독교연합신문 2009 년 4 월 23 일 보도.

[232]박성원.

아닌 부흥과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교회에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진정한 '예배갱신'이 있기를 소망한다.

본 연구 논문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예배를 통해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다시금 이루게 하고자 함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먼저 양적 성장의 목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부분부터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러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은 다시금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목적을 점검하고, 인간이 원하고 추구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의 회귀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교회와 예배자들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실 것이다.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하는 미래사회에서 교회를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과학기술이나 물질을 추구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게 되므로 교회는 더욱 영적이어야 하고 덜 물질적이어야 한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영적 기근에 빠지게 될 미래교회에 영적 기능의 부활은 새로운 교회갱신의 길을 제공할 것이다.[233] 진정한 교회는 의미있는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끊임없는 동력을 얻는다.[234] 조화있고, 생동감 있는

---

[233]이성희, 41.

[234]박은규, 11.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개개인에 대한 예배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목회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예전적 이해를 가지고 의미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235] 리마예식서는 하나의 완성품으로서가 아니라 완성되어가고 있는 예식으로서 한국교회의 예배신학에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236] 미래는 창조적인 예배 즉 창의력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예배를 요구한다.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두 가지 반대되는 양극성을 하나로 볼 줄 알고 끊임없이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 즉, 화해, 평화,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가 전통과 변화의 조화 가운데서 힘있게 전하여 지기를 바라본다.

역사적으로 유대, 희랍, 로마, 유럽, 미국, 라틴, 아시아,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의 모든 문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 거룩한 공간과 시간의 만남은 바로 예배이다. 오늘의 예배는 성경적 특히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에 있다. 끊임없이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담는 새 그릇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의 그릇만이 아닌 여러 종류의 그릇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다양한 예배의 수용이다.[237] 앞으로의 예배변화에 대한 과제로 한신대학교 교수 박근원은 예배의 축제화와 성만찬이 강조된 주일 예배의 차별화, 한국적 매일기도회의

---

[235]최희범, "한국 개신교회 주일 낮 예배순서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선교 제 18 집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1994), 62.

[236]박근원, *리마예식서*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1), 26-7.

[237]허정갑, 8.

역동성, 교회 예배 및 가정예식의 재정립, 시편 노래의 개발과 활용, 단순하면서도 창조적인 예배의 표현등을 말한다.[238] 간단히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종합예술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축제적, 의식적, 가족적인 요소들은 효과적인 예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238]http://ccas.peacenet.or.kr/the-w1.htm

1. 예배 변경 전후의 예배 순서 비교

변경 전 예배 순서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경배와 찬양 Praise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1부)	아름다운 찬양팀(2부)
*예배의 부름 Call to God		아름다운성가대
*신앙의 고백 Confession	사도신경	전심으로
예배의 찬양 Hymn	375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집중하며
중보의 기도 Prayer		정성헌 집사(1부) 정인성 안수집사(2부)
생명의 말씀 Scripture	에스겔 37:1-14	되새기며
영광의 찬양 Anthem	주님만을 섬기리	청소년오케스트라(1부) 아름다운성가대(2부)
말씀의 선포 Sermon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	구성모 목사
봉헌과 기도 Offering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정성으로
환영과 소식 Announcement		담임목사
*결단의 찬양 Hymn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부) 축복합니다(2부)	헌신하며
*치유와 소원 Prayer		확신속에
*축 도 Benediction		구성모 목사

•수요일 저녁 모임에 만납시다!•

변경 후 예배 순서

1부: 오전 8시 55분 / 2부: 오전 10시 45분, 인도: 구성모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Please stand all who are able.

예배찬양 Soaking Praise	1부/ 전능왕 오셔서 (새10) 보혈을 지나 예배합니다 찬양하라 (기도) 2부/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기도) 십자가로 가까이 (새439) 주님과 함께 하는 내가 주인 삼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새435) (기도)	아름다운 찬양팀
기도 Prayer		윤동환 집사 (1부) 정인성 장로 (2부)
영광찬양 Anthem	1부/ 영원히 찬양 드리세 2부/ 영화롭도다	Power Praise 아름다운 성가대
소식과 환영 Announcement		영상으로
*찬양과 봉헌 Praise & Offering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정성으로
*봉헌기도 Prayer		담임목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15:1-6	합독으로
생명의 말씀선포 Sermon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성모 목사
*찬양 Praise	주 품에 거리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축도 Benediction		구성모 목사
	축복송-축복합니다	

2. 설문지

설문조사에 앞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성별	신앙연륜	미국거주	세미나 참석
	남 / 여	년	년	예 / 아니오

본 설문조사는 논문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목표로 하는 예배형태에 관한 연구'에 인용되는 자료로만 활용이 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없는 답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가 모든 교회에 있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 년 12 월 홍석영 목사.

- 단계 구분 / 해당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우 아니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세미나]	1	2	3	4	5
1. 세미나 후 예배관이 변했다.	1	2	3	4	5
2. 세미나 후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가 변했다.	1	2	3	4	5
3. 세미나 후 준비된 예배의 필요성이 느껴졌다.	1	2	3	4	5
4. 예배에 관련된 교육이 교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예배팀 훈련]					
1. 찬양팀/방송팀 등의 예배팀이 반드시 필요하다.	1	2	3	4	5
2. 예배팀의 훈련은 정기적/지속적이어야 한다.	1	2	3	4	5
3. 훈련 후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변했다.	1	2	3	4	5
4. 훈련은 이론/실기가 병행되어야 한다.	1	2	3	4	5
[주일 예배]					
1. 주일 예배의 변화에 적응이 쉽다.	1	2	3	4	5
2. 동일한 순서이나 변화 후 순서의 의미가 새로워 졌다.	1	2	3	4	5
3. 예배 순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4. 변경 전 보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1	2	3	4	5
5. 예배 후의 감동이 이전보다 더 오래 간다.	1	2	3	4	5
6.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삶 속에 드러난다.	1	2	3	4	5
7. 설교 전 찬양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8.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하다.	1	2	3	4	5
9.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하다.	1	2	3	4	5
10. 변화의 적응이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2	3	4	5
[금요 예배]					
1.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차별화되야 한다.	1	2	3	4	5
2. 신앙 훈련과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1	2	3	4	5
[행사(예배 축제 등)]					
1. 각종 행사가 하나님을 경험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1	2	3	4	5
2. 주기적인 예배 축제는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3. 예배 축제 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하다.	1	2	3	4	5

Bibliography

A. 한국서적

김소영. *예배와 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김수학. *개혁파 예배학.* 대구: 보문출판사, 1983.

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서울: 프리셉트, 2000.

박근원. *현대신학실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________. *리마예식서.*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1.

박기순. *인간, 매체,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박아론. *새벽기도의 신학.* 서울: 세종출판사, 1974.

박은규. *기독교 입문.* 대전: 목원대학출판부, 1982.

________.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박형룡 박사 전집 VI.* 개혁주의신행협회, 1983.

유세경. *방송학 원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이광호. 세계 선교의 새로운 과제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이시형. *대인공포증.* 서울: 일조각, 1993.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솔로몬, 1993.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7.

정흥호. *복음주의적 상황화.*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6.

B. 번역서적

Abba, Ramond. *Principles of Christian Worship.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경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Barry, Gerald Ed. *Communication and Language: Networks of Thought and Action.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차배근 역. 서울: 세영사, 1987.

Berkhof, Louis.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교회론.* 신윤복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6.

________.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기독교 신학개론.*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6.

Clowney, Edmund P. *The Church.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P, 1998.

Cullmann, Oscar. *Early Christian Worship. 원시기독교예배.* 이선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Davies, John G. *Worship and Mission. 예배와 선교.* 김소영, 홍철화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George Carl F.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명성훈 공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Gibbs, Eddie. *Churchnext: Quantum Changes in How We Do Ministry. Next Church.*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3.

Grudem, Wayne.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하).* 노진준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7.

Howe, Reuel L. *Miracle of Dialogue. 대화의 기적.* 김광선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9.

Hull, Bill. *The Complete Book of Discipleship: On Being and Making Followers of Christ,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교회가 산다.* 박경환 역. 서울: 요단, 1994.

Jones, Ilion. *A Historical Approach to Evangelical Worship. 복음적 예배의 이해.* 정장복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Lanigan, Richard. *Phenomenology of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현상학.* 박기순, 이두원 공역. 서울: 나남출판, 1988.

McGrath, Alister.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신학의 역사*. 소기천, 이달, 임건, 최춘혁 공역. 서울: 지와 사랑, 2001.

________. *Thristian Theology. 역사 속의 신학*. 김홍기, 이형기, 임승안, 이양호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Martin, Oden, Thomas C. *Pastoral Theology: Essentials of Ministry. 목회신학.* 이기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Martin, Ralph P. *Worship in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예배.* 오창윤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86.

Rayburn, Robert G. *O Come, Let Us Worship: Corporate Worship in the Evangelical Church, 예배학*, 김달생, 강귀봉 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Segler, Franklin M. *Christian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예배학원론*. 정진황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79.

________. *A Theology of Church and Ministry. 목회학개론.* 이창희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77.

Shepherd Jr., Massey H. *The Worship of the Church. 예전학.* 정철범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Thiessen, Henry C.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강론*.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5.

Tozer, Wilson A. *Speaks to Students: 세상과 충돌하라*.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5.

Webber, Robert E. *God still Speaks: a Biblical View of Christian Communication. 그리스도교 커뮤니케이션.*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White, James F. *A Brief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예배의 역사*. 정장복 역. 서울: 쿰란출판사, 1997.

________. *Protestant Worship. 개신교 예배.*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C. 외국서적

Ashomre, Richard D. *Psychologic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Intergroup Conflict*. Oxford: Pergamon Press, 1976.

Barkley, John M. *Worship of the Reformed Church.* Richmond: John Knox Press, 1967.

Barclay, Robert. *An Apology for the True Christian Divinity.* Manchester: William Irwin, 1869.

Benedict, Daniel T., *Craig Miller. Contemporary Worship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ashville: Discipleship Resources, 1994.

Boer, Harry R. *A Short History of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Bouley, Allan. *From Freedom to Formula.*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1.

Brilioth, Yngve. *A Brief History of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5.

Bugnini, Annibale*. The Reform of the Liturgy 1948-1975*.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0.

Chunpungco, Anscar J. *Liturgical Inculturation Sacramental, Religiosit and Catechesis*.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2.

Davies, Horton. *Worship and Theology in Englan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Deci, Edward L. *Intrinisic Motivation*. New York: Prenum, 1975.

Ebeling, Gerhard. *Studium der Theologie, Eine Enzyklopaedische Orentierung*, 1975.

Gadamer, Hans G. *Truth and Method*. New York: Crossroad, 1982.

Hunter III, George G. *Church for the Unchurched.*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6.

Johnson, Eric W. *Quaker Meeting: A Risky Business*. Bittsburgh: Dorrance Publishing Co., 1991.

Kant, Immanuel. *Religion Within the Limits of Reason Alone*. New York: Harper & Row, 1960.

Macleod, Donald. *Presbyterian Worship; Its Memory & Method*. Richmond: John Knox Press, 1966.

Maxwell, William D.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Miles, Margaret R. *Image as Insight*. Boston: Beacon Press, 1985.

Penelope, Brown., *Stephen Levinson.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ower, David N. *Worship: Culture and Theology*. Washington D.C.: The Pastoral Press, 1990.

Rayburn, Robert G. *O Come Let us Worship.*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Richardson, Cyril C. *Early Christian Father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3.

Roessler, Dietrich. Grundriss der Praktischen Theologie. Berlin/New York, 1994.

The Joint Committee on Worship for 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 *The WorshipBook*. Philadelphia: The Westerminster Press, 1970.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e Book of Worship*. Nashvill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65.

Thomson, Bar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Tozer. Wilson A. *Whatever Happen to Worship*. Camp Hill, PA: Christian Publications, 1985.

Van Til Henry R. *The Calvinistic Conception of Culture*. New York: Baker Book House, 1992.

Webber, Robert E. *Worship Old and New*.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White James E. *Opening the Front Door: Worship and Church Growth*. Nashville: Convention, 1992.

White, James F.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89.

D. 논문

박종사마. "한국인의 사회행동에서 나타나는 체면-기분-눈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의 가능성." 숭전대학생 지도연구. 1985.

Roof Clark W. "The Changing American Religious Landscape and Implications for Ritual," paper at a meeting of the North American Academy of Liturgy in January, 1994.

Williams, John P. "Why Should a Christian Study Sociology?" in De Santo et al. des. A Reader in sociology: Christian Perspectives. Penn: Herald Press, 1980.

E. 신문

Tillich, Paul. "Die Verlorene Dimension." *Saturday evening Post*, No. 50. 1958.

정삼지. "사람이 중요하다." 기독교연합신문 2009 년 4 월 23 일.

채문주. "파송된 한국 선교사 169 개국 2 만 840 명." 기독교타임즈. 2010 년 3 월 17 일.

"세계 지성을 만나다(1) 독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 조선일보, 1996 년 1 월 1 일.

F. 간행물

김용복. "공동체 운동과 커뮤니케이션."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5 월호.

김제은. "찬양할 이유있네." 빛과 소금. 서울: 두란노서원. 1998 년 9 월.

노승찬. "각 교단의 교회 확장 계획의 성과와 전망."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서원. 1993 년 7 월.

문동학. "열린예배의 신학적 이해와 영성."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서원. 1997 년 4 월.

박종균.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기독교." 세계의 신학 제 46 호. 서울: 한국기독교 연구소.

정용섭. "그리스도교 예배의 신학."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년 10 월호.

________.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 예배의 갱신." 신학사상 제 14 집.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6.

정장복. "기독교 예배의 토착적 표현과 그 전개의 과제."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년 11 월.

조기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기도생활. 서울: 월간 기도생활, 1992 년 5 월호.

________. "한국 개신교 예배의 역사적 기원과 신학적 정체성." 신학과 선교 28 집. 부천: 서울신학대학, 2008.

조성호. "WACC 의 활동과 커뮤니케이션 선교 정책."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5 월호.

진미애. "새들백교회는 이렇게 성장했다." 월간 목회. 서울: 월간목회사, 1998 년 4 월.

최상진, 유승엽.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사회
Vol. 6. 1992.

최희범. “한국 개신교회 주일 낮 예배순서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선교 18 집,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1994.

홍정표. “성경 속의 음악과 찬양.” 빛과 소금. 서울: 두란노서원. 1988 년 9 월.

Payne, Bill. 찬양과 예배. 빛과 소금. 서울: 두란노서원, 1988 년 9 월.

G. 미간행 자료

김이곤. “회당예배.” 제 9 회 연신원 목회자 신학 세미나 강의집. 현대교회의
예배와 설교. 서울: 연세대학교 유니온 학술 자료원, 1989.

박은규. “예배신학.” 제 9 회 연신원 목회자 신학 세미나 강의집. 현대교회의
예배와 설교. 서울: 연세대학교 유니온 학술 자료원, 1989.

허정갑. 예배갱신. 21 세기 이민교회의 비전 세미나 자료집.

Molina-Markham, Elizabeth. “An analysis of written communication about the ‘Gathered Meeting for Worship’ Among Quaker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2004.

Srader, Doyle. “Rocognizing anamnesis in all phases of worship,” paper for communication studies of the Northwest Christian College, Eugene, OR, 2001.

Van Beek, Joanne. “Worship as response to a revelation of the Christ-event story,” paper for meeting CCWS, 2004.

H. 사전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제 3 판. 서울: 민중서림, 1994.

한국어사전편찬회 편. 한국어 대사전. 서울: 현문사. 1976.

I. 인터넷 자료

김용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고찰.” http://www.oikozoe.or.kr

박성원. “21 세기를 앞둔 교회 예배학의 새로운 지평.” http://oikozoe.or.kr

조기연. “말씀과 식탁-과학문명기 새 예배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http://sgti.kehc.org

Fletcher, Jone. “A quaker speaks from the black experience.” Friends Journal. http://www.friendsjournal.org, 2007.

Martin, Eric M. “Deep, tall, and wide.” Friends Journal. http://www.friendsjournal.org, 2006.

http://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wcc-programmes/unity-mission-evangelism-and-spirituality/spirituality-and-worship/the-eucharistic-liturgy-of-lima.html

J. Website

http://amenjesus.org

http://ccas.peacenet.or.kr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

http://www.cityofenglewood.org

http://www.ageofthesage.org/philosophy/history/toynbeestudyhistory.html

http://www.caya.kr

http://www.dimode.co.kr

http://www.eklc.co.kr

http://www.fgskcc.org

http://www.franklincovey.com/tc/solutions/the-7-habits-solutions

http://www.greatlord.org

http://www.kcm.kr

http://www.kwangmun.org

http://www.oikozoe.or.kr

http://pwusa.org

http://soaking.net/soaking.php

http://theology.ac.kr